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수상작 모음
희망을 지피는 이야기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수상작 모음
희망을 지피는 이야기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제4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수상작 모음

희망을 지피는 이야기 4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인 : 함세웅
발행일 : 2005년 12월 7일
후 원 : 행정자치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주 소 : (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3층
전 화 : 02)3709-7500 팩 스 : 02)3709-7530
E-mail : kdemocracy@kdemocracy.or.kr 홈페이지 : www.kdemocracy.or.kr

발간사

올해로 제4 ㅣ째를 맞이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은 자유, , , , 환경 등 민주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자긍심으로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공모전이 우리가 지켜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그 배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작품들이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퍼트리고, 배움과 생활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데 큰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5 12 ㅣ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목차

발간사 5

수상소감
국무총리상 8
행정자치부장관상 9

심사평 10

수상작품

특별상
국무총리상
오월 광주, 핏빛절규의 한복판에 서서…이슬 13
행정자치부장관상
이방인…성호연 20

독서감상문

초등부
맨발의 겐을 읽고…정채원 21
산적의 딸 로냐…조혜민 24
몽실이의 평화…조광재 26

중등부
쥐가 내게 남긴 것…김은주 29
우리들의 세느를 향해서…이지원 34

고등부
소수의 힘겨운 삶을 바라보다…최미란 38
아이들의 고통…김지희 45
악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여, 나와 함께 가자.…배소영 52
연어들의 역류-그것을 통하여 본 진정한 민주화의 방법…서휘원 57

일반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박새봄 61
심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임영직 6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고…김선주 75
사회로 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송수진 80

생활글

초등부
우리는 모두 같아요…안원빈 86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한승지 88
자투리땅 꽃 가꾸기 운동…안승현 90
방독면 쓰던 모교(母校)는?…이기남 93

중등부
교문 너머의 드라마…윤고운 95
유채꽃밭과 코스모스길…이은주 99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김영우 102
518역사캠프를 다녀와서…이수혁 106

고등부
색칠공부…이동수 110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조찬향 114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김소담 118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전미라 126

일반부
1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게 있네…김양희 129
1979년 겨울, 형의 석방…김진규 133
비석 속에 갇힌 역사…최복임 140
사상과 양심의 자유…김수연 143

시

초등부
평화는..…황정민 148
통일의 푸른 바람…이나연 150
그들은 알까요…이창신 152
내일의 통일…윤수영 154

중등부
밤처럼 검은 이의 나처럼…한성덕 155
그깟 철쪼가리…곽예슬 157
통일의 꿈…고혜정 158

고등부
피범벅의 병정놀이…박유미 160
로봇…박지선 161
여느 때와 같이…조아라 162
비로봉에 올라서다…구효경 163

일반부
통일절에…김범천 164
해피버스데이…이근우 165
무덤에 핀 민들레…김영근 166
이상한 나라 앨리스…이명윤 167

수상자 명단 169
공모전 개요 171

수상소감

우선 이렇게 큰상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누군가는 제 목숨을 던졌던 이 것에 대하여 고작 열여덟 살인 제가 편히 앉아 써 내려간 글이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조금 쑥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창자까지 투명하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야겠습니다.

수상 결과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준 가족과 친구들, 단 한번도 만나 본 적은 없지만 나의 오래된 작은 꿈,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인 김남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 고마운 사람들과 부족한 글 좋게 봐주시고 상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부끄럽지 않을 좋은 글, 좋은 모습 앞으로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상
부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슬

열 달 동안 함께 꿈꾸고 생활하던 예쁜 아기가 세상으로 나온 다음 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수상소식을 듣게 되었다. 16시간의 진통이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싹 잊혀졌듯이 없는 실력으로 머리 싸맨 날들이 모두 지워질 만큼 기뻤다. 아무래도 우리 예쁜 아기가 복 덩어리 인 듯싶다.

얼마 전 텔레비전 시사프로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돌아가야 할 날이 지났는데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으니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흠이 많은 작품을 옥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하며 항상 나의 주변에서 함께 해주는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우리아기가 살아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 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행정자치부 장관상
성호연

심사평

문예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글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공모전의 주체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이름에 눌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작품이 주제를 너무 앞세우게 되어 되레 감동이 떨어지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활글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여 문예공모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야기로 형상화하면 되는데, 많은 응모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딱딱한 말투로 풀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인권과 민주가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이웃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소박하게 써 나가면 됩니다. 인권이니 민주니 하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글을 읽는 이면 누구나 인권이나 민주를 떠올리게 되는 글, 그게 좋은 글입니다.

독서감상문은 말 그대로 책을 읽은 다음 자신의 감상을 적은 글입니다. 자신의 감상을 적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읽은 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적은 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글은 독서감상문이라기보다는 서평에 가까웠습니다. 서평은 책의 내용에 대해 일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평을 하는 글입니다. 독서감상문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시는 두루 잘 알다시피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입니다.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여타 산문과는 다르지요. 함축적인 언어는 곧 상징이나 비유, 이미지 따위를 적절하게 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가 정서나 사상은 들어 있으나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곧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여겨집니다.
700 편이 넘는 많은 작품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띈 작품은 광주를

다녀온 일을 바탕으로 쓴 기행문 형식의 글인 <오월 광주, 핏빛 절규의 한복판에 서서>였습니다. 이 글은 글쓴이의 뚜렷한 주관을 바탕으로 하여 오월 현장의 의미를 잘 새겼습니다. 다음으론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그린 시 <이방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꿈' 과 '손'을 시어로 택해 단순한 듯하지만 강렬한 심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입상한 분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탈락한 분들에게는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돌아보며 이 땅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민주화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 바랍니다.

심사위원 일동

*** 심사위원**

- 예심 심사위원
  · 독서감상문 : 염보영, 이미경, 이선영, 이성희, 정인순
  · 생 활 글 : 구경미, 김상영, 이명랑, 이재웅, 한차현
  · 시 : 강신애, 류외향, 손택수, 안현미, 엄경희

- 본심 심사위원
  · 문국주, 박상률, 유시춘, 이인휘, 정희성

수상작품

생활글 고등부
국무총리상
부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슬

오월 광주, 핏빛 절규의 한복판에 서서

-2004년 8월 15일 광주 기행-

시인 김남주, 멈춰 있던 내 가슴을 깨우다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우연히 듣게 된 이 노래, 가수 안치환의 목소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당시 중학생이었던 내가 그 노래를 이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저 늘 상 들려오던 유행가와는 사뭇 다른 노랫말이 새롭게 느껴졌던 정도. 그렇게 그 노래는 내게서 잊혀져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것은 자꾸만 가시처럼 고 어린 가슴을 파고들어 뜨겁게 했다. 무엇 때문에 노랫말 속 그 사람은 싸워야만 했던 걸까?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만인을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걸까? 싸워야만 허락되는 자유라?!

시간이 좀 지나서야 나는 그 노랫말이 김남주 시인의 시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내 가슴에 박혀 버린 김남주의 시들을 그 때부터 나는 하나하나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인이자 전사였던 김남주의 시가 내게로 왔고, 그의 시를 품은 나의 가슴은 그제서야 내 나라 자유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가난하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신음, 김남주 시인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래에 가슴을 열게 되는 순간이었다.

광주 일천구백팔십년 오월 어느 날

김남주 시인의 시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소위 '민중 시'를 읽으며 이렇듯 펜으로, 또 어떤 이들은 맨 몸으로 맞선 당시의 숱한 불합리와 모순, 독재에 나 또한 분노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당시의 문인들과 민중들, 민주열사들의 그 함성이 내 귀와 가슴으로 울려 퍼졌다. 그 중 80년대에 활동했던 많은 문인들이 '오월 광주'에 오열하며 격정적인 작품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노동자, 내 나이 또래의 고교생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열사들이 몸에 불을 지르거나 투신을 한 원인이 대부분 '광주'에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그 80년대 대표 문인 중 한 사람인 김남주 시인 역시 '오월 광주'에 대한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특히 '학살2'이라는 시는 당시 광주의 처참했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월 광주?! 교과서 지식으로는 부족했다. 그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오월 광주를 이해하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대체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나는 문헌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알아 갈수록 내 가슴을 파고들어 뜨겁게 만들었던 김남주의 시는 어느 덧 눈물이 되어 나의 볼을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내게 참된 민주화의 정신을 일깨워 준 시인 김남주, 아니 전사 김남주의 젊음이 사무친, 김남주 자신이 잠들어 있는 그 곳 광주. 오늘의 자유를 위하여 20여 년 전에 홀로 미리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곳 광주! 많은 것을 준비해 갈 필요는 없었다. 김남주의 시집 한 권과 안치환의 노래만으로도 나의 어깨는 충분히 무거웠으므로. 2004년 8월 15일, 버스는 거침없이 광주를 향해 달렸고, 어느덧 무등산의 품안에 나를 내려놓았다.

광주, 첫째 날 - 광주제일고등학교, 전사의 길 위에 첫발을 내딛은 소년 김남주

터미널에서부터 걸어 간 첫 번째 목적지는 광주제일고등학교였다. 그 거리가 그리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힘이 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

다. 광주 하늘 아래 내가 섰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때문도 그 이유였으며, 5.18 당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걸었을 이 땅을 내 발로 걷는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광주제일고등학교는 김남주 시인이 다녔던 고등학교로, 그는 암울한 시대의 혁명가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 고등학교2학년 때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하여 학교를 자퇴한다. 김남주 투쟁의 삶, 그 시작은 바로 이 곳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가 비록 채 2년도 다니지 않은 학교지만 고등학생인 나로서는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시인 김남주, 전사 김남주는 내 나이 때 이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엇을 배우며 어떤 생각, 어떤 시선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았을 지가 궁금했다. 또한 그의 고교생활과 비교하여 너무도 안일한 나의 생활 태도에 있어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다.
이 날 새로 알게 된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광주학생운동'의 주역들이 여기 광주일고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마침 이 날이 광복절이었으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광주, 첫째 날 - 금남로, 핏빛 절규의 한복판에 서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전남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청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금남로'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광주의 해방을 위하여, 계엄군들의 총에 쓰러진 가족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무기를 들었던 그들의 피가 흐르는 금남로를 내가 걷고 있었다. 금남로의 끝으로 도청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었던 도청 건물과 그 앞 분수대는 20여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 것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날의 노래, 그 날의 죽음을. 허나,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5.18의 숱한 의문점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이 입 꾹 다물고 있는 그 낡은 건물과 분수대가 조금은 밉게 보이기도 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둘 뿐인 듯 했다. 그 날에 비해 오늘날의 금남로는

너무도 번화했고, 시끄러운 유행가가 끊이질 않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았다. 아니, 화려한 차림새로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가는 내 또래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오월 광주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도청 울타리 구석진 곳에 세워진 초라한 5.18 기념물만이 그 날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4년 금남로>

회색 빛의 하늘은
나를 24년 전
핏빛 절규의 한 복판에서
길 잃게 하였다

방향을 잃고 쓰러져 가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 날을 기념하는 탑도
나에게 주어진 그들의 자유도 아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수많은 인파의 새하얀 발아래
외로운 금남로를 가르는
한 점의 바람

자유의 가슴팍을 향한 총성과
끝내 감지 못한 두 눈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그 한 점의 바람이었다

이렇게 씁쓸한 기분으로 도청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자기 전에 끄적여 본 시다. 금남로 한 복판에서 실망한 나를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 안의 바람 한 점 뿐이었다.

광주, 둘째 날 - 국립 5.18 묘지,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던진 사람들

다음날 아침, 망월동 국립 5.18 묘지로 향했다. 국립 5.18 묘지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 와 5.18 묘지 뒤쪽 산기슭(현재의 5.18 구묘지)에 묻혔던 분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조성한 곳이다. 현 5.18 구 묘지에는 오늘도 참된 민주화를 외치며 자신을 희생한 민주열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남주 시인 역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민주열사 중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주로의 여행에 있어 이 곳은 가장 중요한 답사지 이기도 했다.

이른 아침이었고 날씨 또한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해서 그러한지 방문객이 없었다. 막 민주의 문을 들어서려는 데 묘지 안내원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셨다. 그 분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그 외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분께서는 어린 나이에 광주와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참 기특하고 고맙다 하셨다. 내 손을 꼭 쥐시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5.18 항쟁의 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해 달라 부탁하셨다. 그 땐 좀 쑥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부탁이 내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언젠가는 나와 우리들의 손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그 분과 헤어지고 나는 한층 더 숙연해진 마음으로 민주의 문을 들어섰다. 공교롭게 민주의 문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마음이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유영 봉안소 안에 모셔진 수많은 희생자들의 영정과 숭모루에서 상영하는 5.18 영상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과 함께 분노의 눈물을 나도 모르게 흘렸다. 아이를 가진 여자, 어린아이, 그저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어느 누가 그들에게 총을 난사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저 착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그 나라의 군인들의 손에 죽어야만 했나.

복잡한 심정으로 묘역을 돌아 김남주 시인을 비롯한 또 다른 많은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구묘지로 향하였다.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진 민주열사들의 곁에 김남주 시인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우리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는 이한열 열사와 강경대 열사의 무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5.18 구묘지가 참 커다란 의미를 지닌 곳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5.18 희생자들도 자리를 옮겨간 그늘 진 그 곳에 잠들어 있는 그들이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게도 보였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김남주 시인의 곁에 있었던 거 같다. 그냥 그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거 같았다.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김남주 시인과 그 곳에 잠들어 있는 모든 열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의 역사를 그려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광주, 둘째 날 - 전남대학교, 민주화를 향한 오월 광주의 첫 외침

다음 목적지는 전남대학교였다. 5.18의 시발점인 동시에 광주일고를 자퇴하고 김남주 시인이 검정고시로 합격한 모교이기도 하다. 계엄군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첫 충돌이 있었던 당시 전남대학교 교문은 그 모습이 바뀌어 있었지만80년대에 자유를 갈망했던 젊은 그들의 사랑과 노래는 여전히 대학교 캠퍼스 안을 흐르고 있는 듯 했다. 그 때 그들이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역으로 행진했던 것과 같이 나 역시 광주역을 향해 걸어갔다.

광주, 둘째 날 - 5.18 기념 공원, 그 날의 기억

광주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5.18 기념 공원이었다. 광주역에서 이 곳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운 좋게도 5.18 당시에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의 차를 타게 되어 가는 내내 80년 오월 광주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두 개의 동상이었다. 두 손이 묶인 채로 쓰러진 아들을 안아 들고 있는 모자 상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고, 부상당한 한 청년을 양쪽에서 두 청년이 부축하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형상의 동상이 모자 상 위 공원 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나

그 세 청년상의 등 뒤로는 커다란 관 모양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함께 있는데 80년 그 당시, 죽어버렸던 이 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이끌고 독재와 억압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 해 매우 감명 깊었다.

나 또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원하며

1박 2일간의 짧았던 광주기행도 벌써 1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다. 여행 당시에 느꼈던 안일한 내 삶의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그새 잊은 듯 여행 전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살지 못한 거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오늘도 나의 교복 주머니 속에는 '김남주'시인의 사진이 담겨져 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나 스스로를 일깨우곤 한다. 그가 어두웠던 시대를 향하여 써 낸 죽창과도 같은 시들이 민주화를 염원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나 역시 앞으로 이 땅 위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싶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겠다. 그 숙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들이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방인

1970년대를 풍미하던 우리네 쪽방
오래도 버틴다. 부실 시공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오래전 무너졌어도,

싱그러운 웃음 시들던 소녀들 떠난 곳,
피부색 다른 이방인들 가득하다.
코리안드림, 다닥다닥 붙은 벌집 속에서
꿈을 찾는다. 허나,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보이는 꿈은 한 평 만큼이다.
그 꿈마저도 항상 먼발치에서 손짓 하는 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왔다던 그,
잘려진 손목을 보이며 울먹이던 그,
그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가늘게 흔들리는 어깨가 안쓰러웠다.
이해심 없는 세상이 안쓰러웠다.

집을 떠나면 모두가 이방인임을 아는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다 반백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의 손을 잡아본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손.
꿈을 위해 노력하는 손.
가족사랑으로 가득 찬 손.
손이 뎅강뎅강 잘려진다.
불법 체류자로 버티다 잘려진 손목,
장바구니에 가득 차 우리네 안방으로 넘쳐온다.
무엇으로 쓸 건가. 그들의 마음을 잘라서 무엇으로 쓸 건가.

독서감상문 초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매탄초등학교 6학년 정채원

맨발의 겐을 읽고

『맨발의 겐』나카자와 케이지, 아름드리미디어

겐은 왜 뛰어다닐까? 그것도 맨발로.....이 책을 읽어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겐은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겐과 그 가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만큼 겐의 아빠는 전쟁을 싫어했다. 일본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겐의 가족들을 비국민 이라고 비난 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 일본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지 않았을까? 전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이 일본에 비까동(원폭)을 떨어트렸다. 일본이 자꾸 전쟁을 질질 끄니까 발리 끝내겠다고 작전을 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일본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다 .

그때 겐은 학교 콘트리트 담장 뒤에 서있던 덕분에 살게 되었다. 겐의 형들은 군대를 가서 히로시마에 없었기에 살았다. 그러나 동생 신지와 에이코 누나는 불에 타서 죽었으며 집에 깔려 아빠도 죽게 되었다.

간신히 살게 된 겐의 엄마와 겐은 겐의 엄마 친구 집에 찾아가 세를 들어 살려고 했다. 그러나 조금 살다가 쫓겨났고 다시 간절히 부탁해서 또 세를 들어 산다고 했다. 원폭이 터져 극한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인하게 변했다.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좋지 않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신지와 닮은 류타라는 아이를 만났다. 그래서 결국 류타도 같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겐의 엄마가 원폭이 떨어졌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돌도 못 지나서 죽었다. 그리고 겐의 엄마와 겐은 집을 찾다 결국 간신히 집을 직접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류타와 겐은 어느 아저씨들을 만났다. 그 아저씨들은 불량배들이었는데 겐을 죽이려 했다. 류타는 예전에 얻은 총으로 그 아저씨들은 죽이고 도망갔다. 전쟁이 멀쩡한 아이를 살인자로 만든 것이다 .

겐은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형들이 찾아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겐의 엄마와 겐의 형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류타의 조직 대장은 류타에게 다른 조직 두목을 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류타와 류타의 친구중 도토리가 죽는다.

겐의 맏형은 돈을 벌로 어디 간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의 병은 더 악화 돼가고 있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 겐이 살려주었던 나추에 누나가 또 자살을 하려고 했다. 화상을 심하게 입어 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단지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니까 군국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추에누나는 류타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가추코랑 같이 옷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그 옷들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겐은 어느 간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겐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겐의 형들은 집을 나갔다. 그래서 결국 겐은 류타와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겐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자폭탄 때문에 겐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불행해졌다. 온 가족이 죽고 비까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만약 겐이었다면 겐처럼 일본 천황을 증오할 것이다. 일본 천황은 하늘이 내린 신의 아들이라면서 사람을 잘 잘리지 못하는 전쟁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 같은 인간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겐처럼 희망을 가지지도 못했을 거다. 핵이란 것은 너무 잔인 한 것 같다. 3분 안에 3만2피트 까

지 솟구쳐 오르다니 모든 사람들의 몸이 녹았다. 설마 사람의 몸이 녹을까 싶은데 너무 강한 빛과 열이 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린애들이 밥을 계속 굶는 게 불쌍해 보였다. 생각할수록 비까는 무서운 무기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원자 폭탄이 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원자 폭탄이 잇다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강대국들도 동시에 모두 원자 폭탄을 없애야 한다.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어트린 것은 미국이다. 앞으로도 원자폭탄을 떨어트릴 가망성이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뭐든지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쉬운 법이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열화 우라늄탄을 썼다.

나는 미국이 왜 전쟁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기 공장 때문이었다. 요즘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남한도 동시에 멸망할 것이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독서감상문 초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상
정읍서초등학교 6학년 조혜민

산적의 딸 로냐

『산적의 딸 로냐』 아스트리드린드그랜, 시공주니어

인터넷 서점을 둘러보다가 산적의 딸 로냐를 보았다. 왠지 모를 궁금함에 휩쓸린 난 그 책을 얼른! 구입하였다. 마티스요새에 살고 있는 산적 마티스의 딸 로냐는 씩씩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이다. 어느 날 마티스의 앙숙인 보르카 일당이 마티스요새로 이사를 온다. 로냐는 둘로 갈라진 마티스 요새에서 비르크를 만났다. 평소 마티스가 보르카에 대해 악담만 해놓은 터라 로냐는 보르카를 싫어했다. 그런데 마티스 요새에서 그의 아들인 비르크를 만나다니..... 로냐는 비르크에게 악담을 한 뒤, 마티스요새에서 이사가라고 했다. 그 후, 로냐와 비르크는 서로가 서로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도와주어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보르카와 마티스 몰래 만나서 같이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티스가 비르크를 인질로 잡고 보르카에게 마티스요새를 떠나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것을 본 로냐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보르카 일당에게 스스로 인질이 되었다. 그 길만이 친구를 살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냐의 대단한 용기였다. 보르카 일당을 요새에서 몰아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그때부터 로냐를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하며 웃음을 잃었다. 보르카가 비르크와 로냐가 친구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르크는 가출을 했다. 로냐는 자신이 항상 비르크 옆에 있고, 비르크도 로냐 옆에 있다고 한 말을 생각하며 예전에 마티스가 가끔 묵은 곰굴로 비르크를 데려갔다. 내가 로냐였다면 비르크가 곰굴에 산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 그 친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할 것이다. 또, 비르크와 계획을 짜서 보르카와 마티스를 합칠 더 좋은 방법을 연구했을 것 같다. 한편으론, 숲에서 산다는 것

은 정말 행복하고 또 상쾌할 것 같다. 비르크와 로냐는 고기를 잡고, 말을 타며 재미있게 생활하였다. 하지만 숲에서 위험천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 때로는 비트로나(어린아이들을 비트로나 굴로 데려가 할퀴고 물어뜯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괴물)들에게 잡힐 뻔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봄과 여름이 가고.....가을이 점점 다가오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 지자 마티스는 로냐를 찾아와 비르크와 같이 살게 해 줄 테니 마티스요새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마티스가 보고 싶었던 로냐는 비르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티스는 로냐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어도 여전히 로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르크도 다시 보르카 일당에게 돌아갔다. 보르카도 비르크를 보고 싶었는지 꽤나 반겼다. 역시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은 아무도 떼어 놀 수 없는 것 같다. 로냐와 비르크는 항상 만났지만 마티스와 보르카는 모른 척 했다. 하지만 보르카와 마티스는 병사들에게 쫓기면서도 서로 싸우려고만 했다. 병사들의 너무 철저한 감시 때문에 마티스와 보르카는 서로 합칠 수 밖에 없었다. 둘은 합치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보르카의 기술! 마티스의 힘! 대단한 싸움이었다. 보르카는 기술이 좋았지만, 마티스의 힘엔 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보르카는 마티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티스는 거대한 파티를 열었다.

보르카와 마티스는 남과 북 같다. 처음에는 싸웠지만 결국 손을 잡는..... 비록 남한과 북한이 아직 손을 잡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마티스와 보르카처럼 손을 잡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또는 읽을 사람들 그리고 다 읽은 사람들에게

"산적의 딸 로냐는 커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로냐는 산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평민이 되었을까요? 나는 로냐가 마티스와 보르카를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사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티스와 보르카가 합쳐지면서 더 크고 강한 요새가 되었듯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어 세계 속에서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들은 스스로가 로냐가 되어 통일을 위한 사신이 되었으면 한다.

"로냐! 내 기대를 저버리지마~!" 강오

독서감상문 초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모산초등학교 6학년 조광재

몽실이의 평화

『몽실언니』 권정생, 창작과비평사

몽실이네는 소위 '만주 거지'라 불리던 가난한 사람들로 해방이 되고 난 직후 외국에서 돌아온 거지 가족이다.

몽실이의 친아버지 정씨는 날품을 팔았고 어머니인 밀양 댁은 구걸질을 했다.

몽실이의 동생 종호는 이름모를 병으로 죽었다.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밀양 댁은 남편 정씨를 배신하고 몽실이를 데리고 도망가 댓골 마을에 사는 김씨한테 새로 시집을 갔다.

김씨는 밥걱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밀양 댁은 새 남편 김씨와의 사이에서 동생 영득이를 낳았고, 몽실이에게는 영득이라는 새 동생을 얻는 즐거움이 생겼지만 그것도 잠깐 이었다.

새 아버지 김씨는 영덕이를 낳고부터 할머니와 함께 몽실이를 구박하고 폭행을 했다.

결국 몽실이를 봉당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서 다리병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몽실이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했고 몽실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콩쥐 팥지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속에는 계모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몽실이에게는 계부가 나쁜 사람이어서 나는 괜히 속상하고 화가 났다.

몽실이는 친아버지 정씨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고모와 다시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친아버지 정씨가 북촌 댁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

고 몽실이에게는 졸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두명씩 생기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계부 김씨와는 달리 북촌 댁은 착했고 몽실이에게 따뜻하게 되해 주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북촌 댁은 난남이라는 아기를 낳은 후 곧 죽었고 몽실이에게는 또 한번의 시련이 찾아 왔다.

어른들은 먹고사는 외에 좀더 즐기기 위해 남을 해친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많이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6.25라는 전쟁도 똑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어른들은 개인끼리 빼앗고 뺏기는 것부터, 좀더 크게는 집단끼리 빼앗는 것이다.

더 크면 나라끼리 빼앗기 위해 싸움이 일어난다.

이번에도 몽실이에게는 새 동생이 생긴 기쁨도 잠깐이었고, 전쟁 난리통에서 난남이에게 젖을 구걸해 먹여 가며 많은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다.

나는 '몽실 언니'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느낀 게 많다.

가난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내며 이 세상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았던 몽실이의 삶은 나로 하여금 어려서 잘 몰랐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했고,

평화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게 했다.

전쟁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너무 많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승자가 없는 무모하고 헛된 것 같다.

한국 전쟁이 휴전 된지도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극심한 이념 갈등과 남북 대립이라는 아픈 상처의 역사만 남겼다.

수 많은 생명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이산의 아픔만 남게 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모아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전쟁이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직, 평화만이 다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몇 달 뒤면 난 중학생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겠지...

나는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주장하고 싶다.

안으로는 장차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 낼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밖으로는 세계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 지킴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폭력과 다툼이 사라지길 노력 할 것을 제안한다.

독서감상문 중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선정중학교 2학년 김은주

쥐가 내게 남긴 것

『쥐』 아트 슈피겔만, 아름드리미디어

나는 쥐를 싫어한다. 나는 만화도 싫어한다. 처음에 '쥐'라는 책을 접했을 땐, 밑도 끝도 없이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좋은 책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내 흥미를 끌지 못할 요소들로만 가득했다. 잔인함, 무서움이 자연스레 연상되는 이 책의 표지는 책 읽는데 어느 정도의 흥미를 붙이고 있던 나에게도 읽고싶다는 욕구를 억제하는 듯 했다. '나치와 유태인' 이라는 소재부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며 커다란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질러져 있기만 하던 이야기도 점차 정돈되어 머릿속에 들어왔고 감탄이 나오거나 가슴이 찡했던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의 부모님은 나치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태인분들이시다. 두 분은 나치의 대학살로 인해 주변 친척들의 대부분을 잃고 그들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목숨을 연명하여 겨우 다시 만나게 되었다. 본래 살던 소스노비에츠를 떠나 미국에 정착한 부모님은 전쟁으로 잃은 아들을 그리워하다 새로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만화가이자, 글을 전개하는 아티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릴 결심을 한 아티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야기를 들으며 만화를 그리고 그 만화가 이 책 '쥐'가 되는 셈이다.

우선 '쥐'는 나에게 가을바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쥐라는 동물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더불어 만화에 대한 거부감을 푸른 잎이 가을이면 물이 들 듯 변화시켰다. 나도 모르게 징그럽고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동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두고 있었던 쥐였는데, 의인화 된 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약함을 이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쥐와 더불어 다른 작은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동물만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해선 안되겠다는 굵은 음성이 내 마음으로 찾아왔다. 만화로도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만화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글에서도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역시 그림을 따르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나치의 대학살이라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되어 묻어나는 그림들은 생생하게 전달되어 잔혹함과 비통함을 부각시켰다. 나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환경인데도 만화의 네모난 칸을 따라가다 보면 온 몸에 전율이 흐르고 입이 딱 벌어지는 순간도 많았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견들을 들은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하게 된 나치들의 탄압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저지를 만행을 들으면 매번 들을 때마다 분노를 하게 되듯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다시 한 번 접할 때마다 그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격을 따지고 목숨을 빼앗는 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일뿐더러 그 과정과 그들의 생각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끔 했다. '인권'과 '평화'라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단어들은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눈에 보일 기미조차 없었다. 특히 수용소에서 경비원이 한 유태인의 모자를 일부러 던지고선 유태인이 모자를 주우러 간 것을 탈출이라고 일컬으며 총으로 쏘고 그 공로로 휴가를 받는 다는 대목은 내 얼굴에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그려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온갖 학대를 받으며 수용소에서의 날을 보낸 사람들은 책 속의 블라덱처럼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매일 밤이면 놀라운 괴성을 지르는 것은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함으로 가득 찼던 것인지를 절실하게 전해준다. 지금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처지이다. 아마 그들에게 괴로운 순간을 떠올리며 이때껏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보라고 하면

커다란 욕조 하나는 피눈물로 가득 차고도 족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하는 '나치의 악행'. 그것이 과연 나와는 별개의 것일까? 나치가 유태인을 미개한 민족이라 일컬으며 무시하고 탄압했듯이, 생각해보면 나도 나보다 부족한 이들에게 무시와 비판을 쏟아 붓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잠재된 무한한 능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평가하며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나 자신이 나치처럼 느껴져서 괴로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외면적인 능력만으로 핍박과 핀잔을 주는 풍토로 흘러가는 듯싶다. 나치에 대한 욕은 입에 올리기 무서울 정도로 과감하게 하면서 스스로의 '나치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회. 역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나를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과 더불어 참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맺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같은 존재로 보고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는 않기로, 겸손함과 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잔혹해 질 수 있을까? 나치의 행동을 통해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나치 악행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의 행동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책에서 보던 바에 의하면 유태인들의 가여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폴란드 인들도 있었으나, 도움은커녕 나치들과 한 패가 되어 학대하고 신고하던 폴란드 인들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유태인 들 끼리도 서로에게 이득이 없으면 돕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의 목숨은 하찮게 여기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책 속에서 블라덱도 화물열차를 타고 가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죽겠다고 애걸을 해도 처음에는 열차 위의 눈을 혼자만 먹으려 했고 죽어 가는 다른 이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열차 안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위로 밟고 다니기도 했으며, 넘어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의 발을 찌르기도 했던 것이다. 참혹한 순간에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던 소재였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도 왠지 가깝게 느껴졌고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다. 환경으로 인해 빚어진 잔인함에 비해 오히려 유태인

을 도왔던 천사표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만약 이러한 환경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나도 내 목숨 유지에 급급하지는 않았을까? 세월이 흘러가며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라는 말보다는 '나'라는 말이 더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 생각하기 전에 자신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하다. 하지만 나라는 한 글자로 줄어버린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로 바꾸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잔인해지는 것의 한계는 어디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나치의 대학살에 숨겨진 그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며 풍요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빛이 될 것이다.

똑똑한 유태인.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쥐'를 읽으며 이젠 스스럼없이 인정하게 되었다. 매일 수프를 먹기 위해 셔츠를 준비하여 "천재적이다"라는 말을 들은 유태인에게서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내 지혜 주머니도 풍성하게 불려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다.

책에는 작가의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작가의 솔직성이다. 아버지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모두 들려주는 책에서는 솔직함이 드러나 더욱 신뢰가 갔다. 내가 책을 쓴다면 아마 허구 투성이로 나의 잘되 부분만 반짝이게 포장한 내용으로 가득할지 모른다. 솔직하게 쓴 글이 잘 쓴 글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솔직한 내용의 만화가 좋은 만화라는 말을 하고 싶다. 순수하고 진실성 있는 만화는 심각함 사이의 재미를 넣어주었으며, 진솔한 자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주었다.

두 번째는 블라덱과 아냐 부부의 사랑이었다. 서로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수용소에서도 배우자 생각만을 하던 이들에게서 나도 이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세상을 떠난 아냐를 계속 잊지 못하는 블라덱과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블라덱이 없어 행복하지 않았던 아냐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불만으로만 가득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처럼 비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디엔가 자유와 인권을 잃은 채 괴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 자신의 행복에만 만족하지 말고 많은 이들의 행복까진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유태인들을 돕던 뼛속까지 따뜻한 폴란드 인들처럼 나도 인류의 한사람으로서 훈훈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독서감상문 중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인천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이지원

우리들의 세느를 향해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창비

오천년 역사 속에 현대적인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십년 정도이다. 세계열강들에 비해 민주화의 기간은 짧았으나 그 과정은 유별날 정도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은 봉건적 조선왕조가 깨지고 커다란 전쟁을 거쳐 남의 힘을 빌어 이룬 절름발이 통일을 지나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의 독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인 홍세화 역시 민주화의 불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는 문리대 외교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조리한 독재정치에 항거하고 있었고 그 저항의식의 작은 씨는 그로 하여금 저항단체인 남민전에 가입하게 했다. 하지만 남민전에서의 활동이 드러나 결국 프랑스의 파리로 망명하게 되고 조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가 외지에서 선택한 생존수단은 택시운전사였다. 특별히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파리의 지리가 익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배워나갔다. 길 뿐만이 아니라 파리의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배워나갔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던 때의 이야기 중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다. 그것은 '개똥을 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개똥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해 준 서당선생과 세 제자의 이야기였는데 세 제자들 중 두 형이 노력에 걸맞지 않는 큰 꿈만을 말하고 훈장이 그를 흐뭇해하자 막내가 장래희망은 그만두고 개똥 세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다. 훈장이 왜냐고 묻자 막내는 두 형에게 각각 하나씩 개똥을 먹이고 싶다고 하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 막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머지 하나의 개똥은 훈장에게 먹이고 싶다는 말이었다. 홍세화의 할아버지는 물었다. 너는 그 말을 훈장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세 번째 개똥은 너의 차지라고 말이다.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며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세 번째 개똥을 먹어야 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 그러다가 점차 자신이 원하는 이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 번째 개똥'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많다. 어린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눈치라는 것이 생겨 주위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개똥'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주위의 환경이 우리가 눈치를 보게끔 만들었기 때문 때도 있다. 전두환이나 박정희의 집권 당시 가혹한 무력탄압이 잇따랐고 그에 몸을 사리고 입을 다물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탄압의 시대보다 현대의 사람들이 더 몸을 사리고 '세 번째 개똥'을 주워 먹게 되는 것 같다. 어쩌면 그 때 처럼 몸과 마음을 불태울 뚜렷한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기 편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홍세화가 겪었던 프랑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개똥'을 먹을 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똘레랑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반 생활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특유의 이념인 '똘레랑스' 가 빠지는 경우는 없다. 발음도 익숙치 않은 그 '똘레랑스' 가 무엇인가 하면 '관용' 정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절대 비방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의견의 충돌이 있다고 해도 대화로 타협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것은 논리로 밝혀내는 것, 그게 똘레랑스이다. 그런 것이 사회의 분위기로 깔려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똘레랑스는 관용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자체를 인정해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훈장 이야기 속의 그 아이가 상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그것이 바로 똘레랑스인 것이다. 그

덕에 홍세화는 택시운전사를 하면서도 프랑스인들에게 무시를 당한 적은 없다. 프랑스인들에게는 똘레랑스가 밑바탕 이념으로 깔려있어, 정말로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편견이 가득한 한국 동포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하였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프랑스와 같은 관용의 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말의 관용도 없이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몰고 가려 했다면 지금 전 세계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불행한 종국을 맞았거나 지나친 의견의 충돌로 평화롭지 못한 나날을 보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관용'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것은 우리가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듯이 프랑스에선 관용과 일맥상통하는 그 똘레랑스가 당연한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관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에, 혹은 자신과 다른 것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이성을 잃게 된다. 우리들이 종종 화가 나서 이성보다 감정을 추구하는 반면 프랑스인 들은 감정 보다는 이성에 입각해 사물을 이해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 끝에 있다고 봐도 좋을 똘레랑스를 밑바탕에 겸비하고 있는 프랑스는 그야말로 국기에 새겨진 자유, 평등, 박애의 이름에 걸맞다.

그렇다면 우리 윗대의 사람들은 프랑스와 같은 자유, 평등을 원했는데, 그를 어떻게 개척해 나갔는가? 그것은 자유를 위한 열정과 이상을 향한 끝없는 몸부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탄압과 추궁이 자신을 뒤따라 와도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 또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워냈고, 우리는 그것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매캐한 최루탄 냄새를 참아가며 그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민주' 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요,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를 지켜나가는 사회였을 것이다. 프랑스의 '똘레랑스' 와 같은 것이 존중되는 사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민주국가인 것은 확실하지만 나라 안에서의 관용, 즉 개개인의 똘레랑스는 존중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도 , 혹은 벌이가 좋지 않은 직업이나 편견이 깃든 직업을 천시 하는 것도 모두 이 똘레랑스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지어 길가에서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것 까지도 우리에게 똘레랑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경우이다. 그 단적인 예의 또 다른 것으로 얼마 전 파문이 되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문제 발언을 들 수 있다. 옛날에 비하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학문적 사상의 자유를 법이라는 질서의 논리로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까지 억압하려는 시도는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홍세화의 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읽으며 민주화의 과정에 있었던 진통과 현재 우리나라가 얼만큼 민주화의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역사책으로만 보아왔기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 깊이 느낄 수 없었던 독재의 무거운 분위기와 학생들의 뜨거운 열의가 공존하여 내 가슴 속에 그때 그 열의를 재현해 주는 듯 했다. 프랑스 사회의 기본이 되는 똘레랑스도 그랬다. 사전처럼 딱딱하게 그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가 되어서 느꼈던 프랑스 특유의 자유의 공기, 똘레랑스가 숨쉬는 프랑스의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과업을 이루는 데에 어떤 것을 더 키워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귀띔해 주었다.

최근 청계천의 물길이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답답했던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물길을 연 것은 마치 우리가 시멘트 도로만큼 딱딱했던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새 민주화의 길을 열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청계천에도 새 물길이 열렸다. 그렇듯이 우리 민주화의 길도 이제 막 열렸다. 자유로운 똘레랑스가 흐르는 세느강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한강에도 그 자유가 닿을 때에 우리 민주의 불꽃도 과거 민주항쟁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열정과 함께 멋지게 타오를 것이다.

독서감상문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광동고등학교 3학년 최미란

소수의 힘겨운 삶을 바라보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정순택 외, 이학사

우리들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동물'일지도 모른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댄다. 단지 서있는 장소가 다를 뿐, 울타리 속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이다. 울타리라는 소속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노동자,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아직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꿈꾼다. 일명 '코리안 드림'이라고 한다. 꿈, 말 그대로 그들이 듣고 있던 한국에 대한 얘기는 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올 채비를 하며 가족들에게 말한다.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그들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가족을 뒤로 한 채 낯선 한국 땅으로 온다. 하지만 고국에서 듣던 소문과는 달리 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일자리는 항상 얼굴색이 까무잡잡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3D업종에 종사해야 하며, 짐승 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도 꾹 참아야 한다. 하루 8시간이 넘도록 일을 해도 월급은 손에 쥐여지지 않고, 대신 욕설과 폭력이 쥐어진다. 처

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러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는 기계에 한쪽 손을 내어주어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치료비를 요구했다가는 사업주의 전화 한통에 외손에 은팔찌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얼굴색이 조금 검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혀 사업주가 질릴 때까지 소가 되어 일을 해야 하는 그들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 "한국인은 착하다"라는 말을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인은 나쁘다"라는 말을 심으며, 고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한국인이 그곳으로 여행을 오면 한국인임을 확인 한 뒤, 한국에서 배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가한다.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는 한국 속담이 딱 들어맞는 얘기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옆에 까만 가방을 든 직장인들보다 우대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군소리 없이 해내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런 그들을 모두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끓어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순진한 그들에게 사기를 쳐서도 안 되며, 폭력과 욕설을 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이상한 눈초리를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 그들을 지켜 주어야 한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는 우리 사회에서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못된 병균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섞여 있으면 안 된다며 그들을 또 다른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는다. 그리고 그들의 움츠러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헛된 망상에 빠져든다.

"어떻게 동성을 좋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더러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니까."

"저게 여자야, 남자야? 성을 바꿨다고? 으~ 징그러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들의 겉모

습만 보고 판단한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몇 년 전 홍석천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혀 전국이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다. 기자회견을 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울고 있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저런 바보! 그걸 밝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사람들의 비난만 받을 텐데."

역시 생각대로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리고 현재 그는 공영방송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실을 밝힌 것이 깊은 상처와 더 많은 짐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다.
사람들은 한대 목소리를 내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A가 아니면 B라는 흑백논리를 적용시켜 비난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순수한 눈으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그들을 어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모습을 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본능을 억제하게끔 만든다면 그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며 시간이다.

목을 짓눌러 숨 쉴 수 없게 만들고 그들에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그들을 인정해야 하며 이해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버려진 새싹들.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다."

이 문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말이었다.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런 말이 떠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 다수에 의해 가려져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소수들이 있다.

엄마도 아빠도 없이, 늙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는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집에는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도 한단다. 또 지급되는 정부의 돈은 그리 많지 않다. 한달 생활비로 쓰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고 정부는 그들을 도왔다고 말한다. 미약한 복지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의 문이 잠겨 있었으며, 집에서마저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곱 살 난 아이를 이처럼 배고프고 두렵고 외롭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177쪽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난 혼자였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택에 집에 오면 날 반기는 건 지독한 싸늘함이었다. 가끔 친구들 집에 가면 반겨주는 어머니를 볼 때 마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엄마가 일 나가지 않기를 빈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상관없지만, 어렸을 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게 왜 그리도 서럽던지……. 그래서 인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공감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감싸안아주지는 못할망정 아이들은 내미는 작은 손을 사회는 외면하고 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꾹꾹 눌러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부하는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세세하게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눈길은 줘야 한다. 비록 그것이 귀찮음의 눈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돈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원한다. 지금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상처를 먹고 자라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우리 희망의 일부는 저 어두컴

컴한 구렁으로 빠져 다시는 꺼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장애는 불쌍함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었다. 학교 등교는 어머니의 차로 했고, 교실까지 오는 것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어렸기 때문에 교실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복도를 지나다가 혹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아이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걷고 있는 걸 몇 번 본적이 있다. 친구들이 없을 땐 그 아이 혼자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왔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학교에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상을 주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를 쳤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니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게 무언가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곤 한다.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가령 내가 버스에 올라탈 때 누군가가 부축해 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게 묻지도 않은 채 내 허리나 양팔을 잡곤 한다. 이건 여성인 나로서는 무척이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128쪽

김효진 씨의 말처럼 그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양팔을 잡았던 것은 그 아이에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을까?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아이에게 도움을 준 아이들의 행동은 그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각인시키는 행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상을 준 건 과연 잘한 행동이었을까? 그 때 어머니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학교 측에서 여자의 몸으로 그 아이를 매일 출퇴근 시켰다는 것에 대단하단 뜻으로 준 상이었지만 그 상을 받는 어머니는 모두가 보지 못하도록 애써 쓴웃음을 삼켰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였더라도 그랬을 테니까.

가끔 착한 일을 한다고 한 행동이 받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측은한 눈? 안타까운 눈? 장애우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는 사람들의 동정어린 눈길에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다친다. 한때 나도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봤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것이다.

그들은 호소한다.

"제발 우리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마저 불쌍하다며 혀를 내둘렀고, 어떤 이는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대할 수 있냐며 목소릴 높였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길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이 꿀꺽, 삼켜져 버렸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

책에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넝마주이들이나 책엔 들어있지 않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제 철거민들. 그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그들은 고립되어 있다.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그리 적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까?

넝마 줍는 그들은 쓸 수 있는데 버려진 자원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상처가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냄새가 난다며 그들이 지나가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코를 막고 인상을 확 찌푸리는 것 등. 또 잘 살고 있다가 '주민들을 위해 그곳을 철거 한다'라는 그

럴 듯한 말로 포장된 정부의 만행에 자신들의 집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있다.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에게 날아오는 것은 화염병, 돌멩이, 끊어져 버린 전기와 수도. 살수 없게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려는 방침이다. 물론 그렇게 괴롭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700만원을 받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겐 별 쓸모가 없다. 700만원 가지고는 집을 구한다며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월세가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들에게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내주고 있다. - 두 가지 선택권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철거민이라면, 지금 그들의 상황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부터 찌푸릴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고 감사해야 한다. 사회는 개개인이 모여 살을 부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구석에 내팽개쳐져서 고물처럼 뒹구는 게 우리다. 서른은 고사하고 마흔, 쉰 살이 넘어도 결혼조차 못하고 덜컹이는 가건물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 죽어간다. -101쪽

독서감상문 고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광동고등학교 3학년 김지희

아픈 것만큼 성장한 우리들

『소녀의 마음』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4월 달 책 중에서 내가 가장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 나의 주장으로 우리 조는 소녀의 마음을 결정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 조 아이들은 다들 재미가 없다고 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재미있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책이다. 특히, 우리가족과 나와의 관계와 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알면서도 무관심한 부분을 이제는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혼한 가정이라고 모두 슬프지는 않아

아직도 우리의 사회는 이혼가정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불쌍하다고 단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혼한 가정이라고 다들 슬프거나 아프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의 경우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한 경우이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좋다고 한다. 이혼하기 전 엄마와 아빠의 갈등이 심했고, 아빠가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없을 때 자기를 많이 학대를 했다고 한다. 그 아이에게는 예전의 생활을 고통의 나날들이었다. 그렇기에 내 친구는 지금이 더 좋다고 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보거나, 또 우리주위의 경우를 보면 부부의 불화나 아이와 배우자 학대를 한 경우와 이혼한 가정 중 아이들은 누가 더 불행하고 슬플까?

아빠, 세상에는 부모가 헤어져서 불행한 아이도 많지만, 부모가 헤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아이도 그만큼 많다는 말, 알어?-p225

이 말처럼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불행할 수 도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 부모가 갈라져서 살게 되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아이도 있지만, “소녀의 마음”의 주인공인 가스리처럼 부모의 이혼을 통행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불행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 이처럼 꼭 이혼을 했다고 꼭 슬프거나 불행한 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혼한 가정을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항상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을 좋게 보지 않는다. 하루빨리 이런 시선을 사라져서 재혼한 가정이나 편부모와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불행하고 슬프지 않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 불행하지도 슬프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주의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더 불행하고 슬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가 이혼을 했다고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서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해라. 그러면 이혼한가정의 아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다를 것 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면을 볼 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다들 슬픈 것 은 아니다. 차라리 어른들의 시선이 더욱더 아이들의 가슴속에 응어리가 될 수 있다.

같은 여자=엄마 이해하기

가스리는 엄마는 항상 만나면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전의 나와 엄마의 사이가 기억났다. 나도 가스리처럼 엄마와 많이 다투었다. 하지만 나는 가스리보다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가 가장 심했다.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와 말싸움을 하면 항상 끝은 “나 오늘 학교 안가.”였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 위해서 공부하니, 너 위해서 하는 거지. 가기 싫으면 가지마.”라고 말씀을 하셨다. 난 엄마와 싸워서 학교를

안가는 날은 그냥 집에서 놀면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엄마와의 다툼이 적어지게 된 계기는 엄마의 눈물 때문이었다. 엄마와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엄마 속 좀 썩이지 말라면서 엄마가 나와 다툰 날에는 엄마가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우신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나는 망치를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 엄마가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나는 그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때부터 나는 달라졌다.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강아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엄마와의 의견충돌을 되도록 하지 않게 노력했다. 첫 번째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을 줄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논리 있게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두 번째로 엄마가 기분 나빠할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하시던 집안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다. 그때부터 나와 엄마의 관계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이에는 사소한 것부터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된다.

하지만 나도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져도, 다툼보다 더 심한 엄마에게 힘들고 나는 당연히 여기던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엄마는 희생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 대부분은 항상 우리들의 엄마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가족원들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그리고 가족원들 중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며 강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희생을 했다. 그 결과 엄마는 우리들에게는 없어는 안 될 공기와 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것이라서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엄마의 중요성을 잘 깨우치지 못한다.

하지만, 가스리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 모습을 모면서 난 우리 엄마가 생각했다. 우리 엄마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우리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스리의 엄마는 멋있고 부러워 보였다. 우리 엄마가 좀 더 안쓰러워 보였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안쓰럽게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에게 잘해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생만을 했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자식의 행복한 나날들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엄마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므로

좀 더 잘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리와 같은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우리와 같은 여자인 엄마를 언제까지나 나와 다르게 보지 않아야 한다. 엄마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엄마를 한층 더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 층 더 성장하는 것이다. 같은 여자로서 우리의 엄마를 이해할 수 있다.

아빠의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기

이 책의 주인공이 가스리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한다. 엄마와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에게는 자신의 비밀도 스스럼없이 말해 준다. 나와 아빠의 관계와는 정반대이다. 어릴 때는 나는 아빠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아이였다고 한다. 항상 아빠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가고 아빠랑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는 아빠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아빠와 애정을 표현을 해 본지 오래됐고, 또한 요즘에는 아빠와 오랫동안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아빠가 하는 말에 단답형으로 말을 하면서 아빠와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한 동안 이런 점을 고치려고 하지만, 버릇이 되어서 힘들었다. 아빠와 말하는 것이 곤욕이 되어버렸고, 말을 하려고 해도 쑥스러움과 공통적인 화제가 없다. 엄마라면 몇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빠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가스리는 나와는 다르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 그리고 엄마와는 틱틱거리면서도 아빠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빠를 무시한 적이 많고 아빠와의 동행은 거북스럽지만, 가스리는 아빠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요리도 한다. 내 친구 중에서도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있다. 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부러웠다. 난 아빠와 있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아빠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점점 우리 아빠가 바뀌어 가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계선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처음 우리아빠는 매우 심한 가부장적인 남편이며, 아버지였다. 하

지만, 점점 아빠의 가부장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아빠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 등 집안일을 한다. 그리고 아빠가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처음에는 저런 것도 노래야? 하면서 말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매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아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를 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아빠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단답식으로 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길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아빠와의 대화도 많이 늘리려고 한다. 점점 이렇게 아빠도 가부정적이지 않고 평등적인 아빠가 되어가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나 또한 아빠를 이해하면 서로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 가는 나도 가스리와 가스리아빠처럼 또 내 친구들처럼 서로의 비밀이나 속마음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가족끼리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한쪽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언제가 나도 아빠와 엄마처럼 친한 사이가 되어있을 미래가 보인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의 밭을 지나는 것이다.

아직 누군가를 사랑해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 그 아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른 여자아이와 웃는 것을 봐도 밉고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연속인 지옥 속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특히, 사춘기시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의 밭을 맨발로 지나는 것 마찬가지이다. 가스리도 자신이 사랑을 하면서 다른 여자아이에게 질투도 느끼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 내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은 벌써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 한다. 그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일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것

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불구덩이로 안 빠지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에 알아버린 사실이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밭을 좀더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랑은 고통의 밭길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온몸이 아프겠지만, 점점 있다보면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아픈 줄도 모르게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다보면 마음은 많이 아프겠지만, 점점 사랑에 익숙해져 그에 비례하게 고통에 익숙해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을 고통의 밭에 들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와 다르게 사는 타인을 이해하는 법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 항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도 나와 같은 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하물며 틀리는데,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나와 다르게 사는 타인을 무시하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협동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특히, 친구들과 가족들의 관계에서 다르게 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모든 일을 느리게 한다. 집에서는 동생이 거북이라고 놀릴 정도로 행동이 느리고 느긋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해야 하는 아빠가 보기에는 많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와는 모두가 틀린데,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라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 갈 수 없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면 타인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특히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재혼가정에 대해서 다르게 살수 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픈 것만큼 성장할 수 있다.

아픈 것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아픈 것만큼 성장한다고 나는 믿는다. 항상 행복하고 불행과 아픔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성장 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NO 이다. 인생의 쓰디쓴 쓴맛을 맛보고 나서야 나는 성장했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다. 가스리는 엄마와 구니오아저씨의 헤어짐, 아빠와 언니의 헤어짐, 남자친구와이 관계 등 여러 가지의 아픔을 맛보고 더 많이 성장했다.

현재의 아픔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픔을 이겨내면 아픔은 나의 성장의 비료 같은 존재이다. 비료로 인해서 나는 좀 더 성장 할 수 있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도 있다. 한번 아픔을 이겨내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 할 수 있다. 아픔을 감당할 수 없다고 도망치고 두려워 하면 우리는 조금도 성장을 할 수 가없게 된다.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당당히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한 나를 볼 수 있다.

큰 세상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발을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라는 고통의 열매이다. 항상 쓰디쓴 약을 먹으면 달콤한 사탕을 먹듯이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는 조금 더 성장 한 나를 볼 수 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내서 성장한 가스리처럼 우리들도 아픔을 견뎌서 성장한 우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서감상문 고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부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배소영

악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여, 나와 함께 가자.

『전태일 평전』 조영래, 돌베개

우리 부모님께서는 50년대 후반 대구에서 태어나셨다. 그 연배 그 쪽 지역 출신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우리 부모님께서도 열렬한 한나라당 지지자이시고, 뉴스를 보며 '박정희 때가 좋았지.'라는 말을 종종 혼잣말로 되풀이 하시곤 한다. 이러한 부모님의 정치적 성향이 깊이 뿌리박혀 자연스레 박정희 대통령은 나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세계가 놀란 우리의 경제성장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당시 겪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머리가 커질수록 더욱 확고해졌는데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나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었을까?'란 생각에, 서점 책꽂이에 꽂혀있던 수많은 책들 중 전태일 평전을 집은 나의 선택이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몇 목숨 없어지면 해결된다." 전태일이 '바보회'에서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러나 전태일의 말처럼 세상은, 몇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고교 내신 등급제를 반대하며 자살했던 고 1학생들, 농민들을 위해 먼 타국에서 스스로 자신의 배를 가른 이경해씨.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불꽃으로 생을 마감한 전태일……. 세상이 바뀌었는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고등학생의 생명을 빼앗아 간 고교 내신 등급제는 아직도 학생들의 목을 옭아매고 있고, 첫째 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할복까지 하며 막아보려 했던 WTO는 결국 체결되어 농민들의 설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 또 전태일의 죽음으로도, 그리고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근로기준법은 그저 허울 좋은 종

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대로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부당한 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고 조그만 중소기업까지도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일요일에는 쉬게 하라'던 전태일 열사의 울부짖음이 무색할 만큼 토요일에도 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근로환경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도 기업주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기업주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몇 달 전 나는 '노조 없는 기업, 삼성'이란 주제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프로그램 속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 세계로 나아가는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근로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삼성그룹 고위 간부들이 몰래 뒤따라가 노조 임원들이 붙인 전단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며,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걸었던 현수막을 뜯어내는 경찰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답답해졌다.

전태일은 삼각산에서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고 하였다. 완전한 결단. 결단을 완전히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단 자체가 완전하다는 말일수도 있다. 그리고 전태일이 전자의 생각으로 글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후자의 생각이다.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을 한 한 신용불량자를 떠올렸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후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태일 에게 죽음은 완전한 선택이었다. 왜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이 그 때의 현실을 바꿔나갈 완전한 선택이라고 여겼던 것일까. 무엇이 전태일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한 결단으로 선택하게 했는가. 그리고 전태일의 완전한 선택이 과연 완전한 오늘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가.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 무게가 나가는 자재를 옮기시다가 자재에 깔려 손톱이 빠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당하셨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장이 산업 재해 보험에 들었음에도 아버지의 수술비는 우리 집에서 고스란히 부담하였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실 때 중소기업 장려를 위해 모범 중소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국가 정책에 아버지의 공장을 신청 해놓았는데 신청한 회사가 워낙 많아 보험 처리를 하면 떨어 질까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셨다. 그렇게 힘들게 신청한 아버지의 공장은 많은 경쟁 회사들 중에 뽑혀 공장 바닥에 에폭시라는 페인트가 깔렸다. 가끔 아버지의 공장에 놀러 가서 공장 바닥을 보면 '여기 깔린 페인트가 우리 아버지께서 부상을 당해도,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얻어낸 그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대부분의 기업체가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 했지만 정작 사고가 잦은 중소기업에 지급 되는 보험료는 무척이나 적고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를 입어도 보험 처리를 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까지 얻어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바로 이런 것인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각혈을 해도, 자신이 피를 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를 당할까 목구멍에서 솟아오르는 피를 필사적으로 가리던 피복 공장 여공들의 아픔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버스비 30원으로, 돈이 없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어린 시다 들에게 풀빵을 사서 나눠 주고, 청계천 6가에서 도봉산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퉁퉁 부은 발로 걸으며 수많은 번뇌를 했을 전태일을 생각해 보았냐고 물어보고 싶다. 수없이 노동청을 찾아가도 내던지기 일쑤였던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서와 제 눈으로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번번이 찢겨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전태일의 절망을 이해하려 노력이라도 해 보았냐고 묻고 싶다. 아직도 전태일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가?

내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던 눈부신 경제성장은 결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몸조차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다락방에서 각성제를 맞아가며 하루 15시간정도의 노동을 해야 했던 15세 미만의 많은 여공들과 시다 들이야 말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일등 공신이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신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피를 토해냈던 평화시장의 3만여 명, 아니 전국의 수십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아무

도 일등공신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물론 나 또한 그랬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 “배가 고프다”라고 말했던 것이 나에게는 관심이 고프다는 것만 같아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의 이유는 2평 남짓한 다락방에서 죽어가는 여공들과 시다 들의 사연 때문도 아니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태일의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도 아니었다. 밀려드는 내 자신에 대한 회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뉴스에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을 너무 풀어주니까 매일 파업이나 벌이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할 텐데 말이야.'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나는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했고 처음부터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머릿속의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어느 샌가부터 권력자가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난 후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무척이나 달라져 있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연일 신문의 앞면을 놓치지 않고 자리 잡았던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 기사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밥 먹을 자리도 주지 않는 회사에 대해 분노했다.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대체 얼마나 들어주기 힘든 요구 이길래, 기업주들이 그렇게나 벌벌 떠는 돈이 대체 얼마나 들어가 길래 파업을 몇 달이나 끌고 가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언론사들은 그들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인 그들이, 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포기해가며 차가운 투쟁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는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무성의하게 카메라에 담아 갔다. 쇠파이프로 경찰을 위협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방패로 자신의 몸 하나 가리기 힘들어하는 경찰들의 모습. 이런 모습만을 보도하는 데 어느 누가 노동자들의 편에 서겠는가. 언론들은 저마다 ‘파업으로 인한 총 손실액’이나 ‘파업으로 부상자 속출’과 같은 수치화된 기사나 내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리고 이런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점점 따가워져만 갔다. 언론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편파적인 시각과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려간 우리 모두가 전태일이 그렇게도 증오하고 경멸하던 '부유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전태일의 외침이, 그리고 눈물이 나에 말을 건넸다. 내가 못다 이룬 일, 소영 학생이 꼭 이뤄달라고. 나는 답했다. 전태일 열사의 못다 이룬 일,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노라고. 적어도 '부유한 환경'의 반대에 설 수 있는 정의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이다.

독서감상문 고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서휘원

연어들의 역류-그것을 통하여 본 진정한 민주화의 방법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유시민, 푸른나무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떠났던 길을 거슬러와 다시 모천에서 알을 산란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안도현의 연어라는 책을 읽은 신경숙 소설가는 연어라는 말만 들어도 연민이 솟아 나온다고 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읽으며 문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여 자유를 울부짖던 그들이 꼭 연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어는 언제나 모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바다에서의 편안한 삶을 택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민중들의 민주라는 모천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때까지 난 어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그 길을 거스르는 행동을 나쁘게만 생각해왔다. '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일까?' 정해진 길이 있는데 말이다. 난 그런 사람들을 마치 반역자와 같이 취급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해진 길을 가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좁은 시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전이었다.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을 읽으며, 나는 연어가 바다에서 모천으로 힘들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세계사를 거꾸로 보는 눈도 가지게 되었다.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에는 끊임없는 항쟁, 투쟁만이 있을 뿐이었다. 진실을, 자유를, 민주를 얻기 위한 그러한 투쟁과 항쟁은 연어들의 회귀와 같았고, 알을 낳고 또 낳는 처절한 희생이 뒤따랐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드레퓌스 사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진실을 보게 되었고, 4.19혁명 부분을 보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을 보게 되었다. 여태껏 내가 자유, 민주, 진실, 혁명과 같은 단어를 진심으로 여겼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시인들의 노래와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것들을 진실로, 가슴으로 느꼈던 적은 없었다. 난 왜 여태껏 내가 바다에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일까? 난 이제야 그들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함성은 결코 희생과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역류로 인해 또다시 수많은 연어들이 태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개밥풀이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난 시험을 위해서 이 시를 공부했었다. 국어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에서 단지 난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 그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그 처절함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개밥풀이라는 시는 민주화에 대한 민중들의 끝없는 열망과 좌절이 잘 표현한 것 같다. 시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을 개밥풀에 비유하고 있다. 개밥풀은 서로 의지하며 똘똘 뭉쳐 권력에 대항하려하지만 큰비를 맞아 결국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그들은 씨를 뿌리고 다시 다음을 희망한다. 마치 연어들이 모천에서 알을 낳는 것처럼 말이다.

온갖 거짓으로 물든 세계 속에서 결국 진실이 승리함을 보며 문득 이수영의 사령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활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내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닌가.” 드레퓌스 사건 때 목이 쉬게 진실을 말하던 그들, 4.19혁명 때 진실을 말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진실과 민주라는 이름인데도 말이다. 이수영은 사령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현실 안주함을, 진실 앞에서의 자신의 용기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민주라는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꾼 이들은 아무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 왔다. 그들은 연어들의 역류와 같이, 끊임없이 권력이라는 흐름에 역류하고 투쟁해 왔던 것이다. 어디서 그러한 힘을 얻은 것일까? 아마도 그 힘은 곧 민주를 향한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강을 향한 연어들의 회귀성이라는 본능과 같이 말이다.

이 책에는 유난히도 전쟁과 관련된 세계사 이야기가 많다. 굳이 작가가 전쟁, 투쟁과 같은 사건을 위주로 이 책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쟁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다. 난 그 때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었다. 왜 전쟁을 기념하려는 것일까? 좋은 일도 아닌데 전쟁을 기념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던 중, 우리는 그 답을 전쟁 기념관에 있는 호국 기념관에서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투쟁이 아닌, 호국이라는 단어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답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너무도 꼭 꼭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답을 찾기 전, 누군가가 만일 나에게 '많은 전쟁을 통한 희생을 보면서 반성하고 호국을 다짐하라'라고 말했다면, 난 아마 그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한, 가슴 깊숙이 그 의미를 곱씹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난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진정으로 오래 전의 전쟁이 남긴 많은 이들의 죽음과 피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그 의문점은 바로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제목에 그 정답이 있었다. 처음엔 왜 제목을 하필이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고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세계사를 현재에서 과거의 역순행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지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 것이 아니었다. "왜곡된 눈으로만 보아져 왔던 피와 투쟁과 같은 것들을 거꾸로 봄으로써, 오히려 그 본질을 깨닫자"라는 작가의 깊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어의 반어를 통한 본질의 깨달음이라고나 할까? 거꾸로 보아서 본질을 본다. 모순적이게 들리지는 몰라도 말이다. 난 이제 거꾸로 본다는 것의 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여태껏 그래왔듯이 거꾸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거꾸로 본다는 말은 비뚤어진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뒤틀린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같은 진실의 왜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거꾸로 보는 행동은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된 진실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열린사회는 오는 것이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칼 포커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폐쇄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열린사회의 적은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틀에 박힌 역사주의적 사고, 또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전체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봐 오면서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꿈꾸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열린사회의 적이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을까? 그 것은 작가가 민주주의도 하나의 권력을 통해 폐쇄될 수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 속에서 우리는 비판할 줄 모르고 점점 자신들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그 예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민주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민주화를 외쳤다. 그들의 열린사회를 위한 희생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아무런 비판 없는 태도와 자유를 당연시 여긴 태도를 반성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거꾸로 보는 책은 비록 그 때의 함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여준 책이다.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 거꾸로 보기, 비판적인 사고로 참여하기, 선입견 가지지 말기, 공정한 눈으로 역사를 평가하기.

지금 나의 귓가에 진실과 자유를 향한 연어들의 힘찬 역류의 헤엄 소리가 맴도는 듯하다. 한 마리의 연어가 모천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다. 그리나 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희생이 하나의 죽음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알을 낳고, 연어는 알을 낳고, 또 탄생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어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아닐까? 지금까지 나는 나를 낳아준 연어들의 희생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때 그들의 힘찬 헤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역류와 그 것과 함께 따르던 그들의 고통을 몰랐던 나. 나는 이제 그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모천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독서감상문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박새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시대의 불꽃 8 윤상원』윤동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너희는 새벽이다. 밝아 오른다.
너희는 새암이다. 솟아 오른다.
심지에 불당기고 앞서 나서자.
민족의 새아침이 밝아 오른다.
땀과 눈물 삼켜 가면서 뛰어가자.
친구. 사랑하는 친구. 들불이 되어.

윤상원이 이끌었던 들불야학의 학당가(學堂歌)이다. 책의 중반부에 나오는 이 노랫말은 차가운 얼음이 갈라지는 듯 나의 머리 속에서 ‘쩡’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일깨웠다.

‘새벽’이고 ‘새암’인 내가 ‘새아침’을 위해 스스로 ‘들불’이 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음악을 전공하는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사회 참여 활동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저 음악이라는 이상향(理想鄕)에만 매달려 살았을 뿐이었다. 예술(藝術)의 아름다움에, 음(音)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 것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의 부조리함에는, 그 아름답지 않은 불편한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아 버리곤 했다. 매년 5월이 되면 학생회관과 단과대학에 설치되던 윤상원 열사의 분향소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무심한 시선으로 한 번 쳐다보고 지나칠 뿐이었다.

솔직히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자질을 가진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전기(傳記)를 통해 나에게 다가

온 윤상원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사람 좋은 아저씨였다. 그가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속의 쿠바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의 소박한 모습에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 것처럼, 나에게도 윤상원은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이웃사촌의 모습이었다. 술을 좋아했고, 친구를 좋아했고, 우리 가락을 구성지게 뽑아낼 줄 아는 호쾌한 사람이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고, 거기에 용기 있게 동참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특히 1978년 은행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가 충분했던 윤상원이 직장을 박차고 나온 부분은 충격이었다. 1970년대, 어른들의 말씀에서 간혹 엿볼 수 있는 다함께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빈부격차와 독재정권의 폭력이 가속화되었던 시절이다. 그 매서운 시절에 자신의 손에 주어진 평탄한 삶을 반납했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도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었다.

얼마 전, 강의 시간에 5·18을 언급하시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얼마나 행운아들인지 모른다. 그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를 바꿔야 했기에 자신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넘겨야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세대이다. 그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한 짓이었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시대였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면 생업을 포기한 채 공동체의 일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한다면 난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앞서 우선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또 무엇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다.

물론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은 민중(民衆)의 과제이며 동시에 나[我]의 과제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였다면 뻔히 보이는 험난한 가시밭길로 선뜻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소심하고 겁 많은 나에게 군부 독재의 총칼과 맞서 싸우는 과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또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었다. 그의 어려운 집안 형편을 들며, 이런 저런 삶의 고충을 이유로 뒤로 물러나 소소한 일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윤상원은 생업을 이유로 자신의 삶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온몸을 내던졌다.

그의 전기를 읽는 동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지 생각하니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어떻게 이 끔찍한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사회 변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요즘 시대가 살만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내 곁으로 그 문제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

5·18 민중 항쟁에 참여한 윤상원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홀로 5·18 자유 공원을 찾아가 보았다. 당시 시민군들을 구금하고 고문, 구타를 자행했던 영창과, 군사 재판이 열렸던 법정을 볼 수 있었다. 영창을 보면서 난 어느새 가슴이 아려왔다. 가슴이 아리다는 느낌을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었지만 아리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느낌은 영화의 슬픈 장면을 보는 것, 슬픈 음악을 듣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가슴 위쪽이 체했을 때처럼, 멍든 것처럼 아파 왔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며칠,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텅 빈 영창이 그때의 상황을 완전히 느끼게 해 주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화가 나고 또 화가 났다. 동시에 숨 막힐 듯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공원에서 돌아와 다시 한 번 윤상원의 이야기가 실린 책 첫머리를 넘겨보았다.

"1080. 5. 29 시청 청소차에 실려 망월시립묘역에 '관번호 57, 검안번호 4-1, 묘지번호 111'로 가매장됨"

나는 결국 울고 말았다. 소리 내어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다. 윤상원의 주검을 청소차에 싣고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가매장해 버렸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을 방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들

었다.

광주와 광주시민들이 결코 자신의 죽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목숨을 버린 윤상원을 까맣게 잊고서 단지 나의 안위(安危)만을 좇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내 부끄러움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를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한 켠에 미래의 민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를 모셔 두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언제나 그를 기억하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을 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윤상원과의 만남 이후, 나는 어느 시민 단체가 주최하는 인권영화제의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사회 운동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리고 나의 전공 분야인 음악을 통해 윤상원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대 앞 흰 목련을 데생하는
예술대생들은 아는지 몰라
목탄으로 터치하고 지우는 일보다
수업시간을 연장하며 소묘해 가는 것보다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이유를.
목련꽃이 피면
사월이 문득 우리 곁에 다가서고
목련이 지면
아무도 모르게 오월이 그 흰 꽃잎을 밟고
조심스러이 들어서고 있는 까닭을.
몇 해 전 그 꽃그늘 아래
몇 명의 학우들이 피를 흘리고
더러는 죽어 흰 목련꽃을 피우며
옥색으로 벙글던 참된 뜻을 아는지 몰라.

임동확의 시(詩) <흰 목련꽃을 보며>의 일부이다. 이 시에 나오

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름다움[美]만을 쫓던 예술대생 한 명은 이제 조금은 '목련꽃'의 의미를 알 것 같다.

5월이 되면, 매년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나의 곁으로 다가와 있을 윤상원 열사께 정성스럽게 향 하나 피우고 돌아서야겠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의 죽음과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려야겠다. 당신의 후배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다.

감옥에서 바라본 하늘이 너무도 아름다워 "살고 싶었다"는 어떤 이의 말처럼, 이 푸른 하늘을 자유로움 속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싸운 윤상원과, 또 다른 많은 윤상원 앞에서 고개 숙여 마음을 다잡는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5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독서감상문 일반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임영직

심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이번으로 나는 광장을 세 번째 만나는 것 같다. 게을렀던 탓에 한 번도 그 만남을 제대로 정리해 남겨두지 않아 그때마다의 생생한 감상은 이제 가물가물 잊혀져 버렸다. 허나 매번 읽을 때마다 저번과는 뭔가 다른 옷이다, 다른 얼굴이다, 다른 향기가 난다하고 느꼈던 것은 여전히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것이 내가 나이를 먹어가며 제 딴에 얻은 지혜 덕이라 셈했었는데, 허나 이번에 전집판을 읽게 되면서 그것이 30십년 동안 이어진 작가의 손길 덕분인 줄 알게 됐다. 모두가 새로운 것만을 향해 내달려 온 지난 세월, 매번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걷기를 시작했던 작가의 그 마음을 차마 헤아려 보려 하진 않겠다. 이렇게도 사신 분이 있구나 하고, 다만 그렇게만 생각해본다. 아마도 처음 이명준을 만났던 그 당시 그 소년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셨던 아저씨도 있었구나 하고. 허나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이 그 아저씨 연배쯤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명준이 아저씨가 아니라 어느 선술집에서 자신과 소주잔이라도 나눴을 법한 나이에 제 자신이 이르고 보니 광자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제 자신에 손에 밀려들던 건 명준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였다. 심해의 밑바닥을 떠돌고 있는 그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였다.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네?”
그날 명준은 이 말대로 부지런히 은혜를 기다렸으나 끝내 그녀는 둘만의 광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다. 그 대신 그날 낙동강엔 물

처럼 피가 흘렀으며 은혜는 포탄의 연기 속에 낱낱의 물방울 되어 사라져 버렸다 한다.

……까맣게 하늘을 덮고 나타난 유엔 공군의 폭격기는, 고맙게도 모여준 화기와 병력을 갈겨댔다. 낙동강에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는 싸움은 이날의 그것이었다. 은혜는 부지런히 만나자던 다짐을 아주 어기고 말았다. 전사한 것이다.

명준의 마지막 광장은 이렇게 사라져 갔다. 한 줄기 바람처럼 한 줌의 먼지같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일까, 슬픔보다 더 슬픈 그 소리는 말론 제 모습을 담지 못하고 문장의 끝자락만을 작고 검은 점으로 서성대고 있을 뿐이었다. 아직은 다 할 수 없었던 말, 아끼듯 다 하지 않았던 말, 차마 제 말론 닿을 수 없어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들이 그 작고 검은 점 안에서 명준의 검은 동공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한 자의 비애는 이처럼 침묵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인가 보다. 이처럼 전쟁 속에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갔고, 세월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쉬이 지워져갔지만 크레파스 보다 더 진했던 그 바다만은 파란 비늘 속으로 여전히 숨을 내쉬고 있을 것만 같다.

소설 광장은 제3국으로 향하는 타고르 호의 갑판 위에서 시작하여 그 뱃길 어디쯤, 망망대해 한 가운데에서 하나의 검은 점으로 끝이 난다. 허나 이 슬픈 이야기의 긴 여정은 그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한 반도의 땅 위에서 비롯됐다. 원래는 하나였으나 어떤 까닭에선지 둘로 쪼개져버린 그 나라에 명준은 살았다 한다. 두 개의 조국, 두 개의 이념, 두 개의 연인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했던 명준은 그 나라를 가르는 38선처럼 제 자신을 절책 속에 가두고 만 것이다. 이처럼 늘 경계선에서 서서였던 명준, 그래서 그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의 색깔로 자신을 온전히 귀속시키지 못했기에 그는 끊임없이 변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새로운 땅, 중립국으로 가는 바다 위의 명준은 그처럼 살아와야 했던 과거의 자신을, 과거의 명준을 되돌아본다. 아니 과거의 명

준이 현재진행형으로 명준의 망막 속에 망령처럼 문득문득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광장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 땅 위에 새겨진 제 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것을, 애써 지우려 그 땅을 떠나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래, 철학과면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군!"

"네?"

생각에서 깨어나면서 얼결에 그렇게 되묻자 형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면서

"이 쌍놈의 새끼, 귓구멍에 말뚝을 박안?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구나. 이런 말야!"

94년도 그해, 같은 과에 적을 두었던 선배들은 40여 년 전 명준이 들었던 이 물음을 당시의 대한민국 형사에게서도 들어야 했다 한다. 그 사이 북한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바뀌었는데, 말마다 같은 강세를 공유하는 동향인에게 느껴야했던 그 낯설고 살 떨리는 공포는 오히려 서울말씨의 그 일제 고등계 형사가 명준에게 주었던 그것과 더 닮아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에게도 딸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겠지. 이 도시의 어느 거리를 걷다 천사 같은 딸아이의 손을 맞잡고 아이처럼 웃고 있는 당신을, 나는 만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옆집 아저씨 같은 그에게 자신의 손을 내주고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한 서약서에 지장을 찍곤 경찰서를 걸어 나오던 숱한 젊음이 그해에도 있었다 한다. 아마 그때쯤 나는 두 번째로 광장을 만났던 것 같다. 이제 대학생이 된 나에게 소설 광장은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다가 왔다. 중, 고등학교에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풍문이 그해 대학에는 떠돌고 있었다. 때때로 그 풍문들은 한 곳에 모여 힘을 모으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그들은 북문 앞 민주광장이라는 곳에 하나 둘 모여들곤 했다.

한국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집 꽃병에 꽂구, 분수 꼭지를 뽑아다……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도둑질하러 나오는 것

이지요. 그러다가 착한 길 가던 사람들이 그걸 말릴라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갱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

민주광장에 모여 학교 북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그들이 있었다. 갱은 사라졌지만 그 곳에 대신 검은 전경이 오월의 짙은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1960년, 광장이 첫 발간되던 그 해, 그 당시의 남한에 대한 명준의 진술이 34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그때의 작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갱을 대신한 전경의 상당수가 대학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폭력의 최전방으로 대학생을 내몰던 그들,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온몸으로 증오를 배우게 해주었던 그들, 그들의 그림자로 우리의 오월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란 불신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신의 방, 밀실뿐입니다.' 명준의 이 입바른 소리가 여전히 절실했던 그해 말, 난 군에 자원입대한다. 도망치고 싶었다.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는 그들의 새하얀 이가 녹음처럼 빛나는 그해의 일이었다.

"아첸 스빠시보. 땡큐 베리 마치란 러시아 말일세."

순간 그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갈겼다. …… 태식의 얼굴이 금시 피투성이가 됐다. 그 핏빛은, 몇 해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렸던, 제 피를 떠올렸다.

상병 말호봉, 그 군바리는 제법 고민 중이다. 제 입에서 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입대 전에는 욕을 해라해도 하지 못했던 제 입에서 이젠 열었다 하면 말의 전부가 욕이다.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말아야지 해봐야 헛일이었다. 이렇게 변해버린 제 모습 탓에 첫사랑도 떠났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허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짓밟히기 전에 먼저 짓밟아야 한다. 박아, 원위치, '원위치', 박아, 원위치, '원위치', 복명복창 소리 봐라. 박아, 이 시발개새끼들아. 난 신병대 조교가 돼 있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을 짓이기는 버릇은 이처럼 몸에서 몸으로 옮아가는 것이구나. 몸의 길. 그는 발을 들어, 마루에 엎어진 태식의 아랫배를 차질렀다.

김주석이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무슨 경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한참 후 간첩칩투가 있었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의 성과물로 간첩들의 사체가 뉴스에 전시되었고 저 놈들 잡은 애들 이제 군생활 폈다는 시기어린 질투가 군바리 사이에 전염병처럼 유행했으며 난 민간이이 돼 있었다. 그 때쯤 난 명확히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과 뉴스에서 말하는 것도 열에 여덟은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제대를 하고 돌아온 대학도 거짓말처럼 달라져 있었다. 어쩜 바라는 바였다. 나는 더 이상 광장 따위를 읽고 싶지 않았다. 모두들 취직을 향해 각개전투의 포복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때 지난 소설 나부랭이나 읽으며 보낼 시간은 없었다. 앞서지 않으면 뒤쳐지는 상대평가제도가 대학가의 새로운 세계관이 돼 있었다. 그 사이 사복형사가 따라붙던 몇몇의 선배들도 사회인이 되어갔고 어쩜 그들은 그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 제 딸아이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다 그 예날 그 S서의 형사와 마주칠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모른 체 지나간다. 아버지의 이상한 낌새에 아이가 묻는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응, 전에 알던 아저씨."

"근데, 왜 서로 인사 안 해."

"응, …… 아주 옛날에 그냥, 옆집에 살던 아저씨였어."

모든 것이 쉬이 잊혀졌고 쉬이 화해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벼워졌다. 이 과정을 세속화라는 단어로 부르진 않겠다. 신성한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까닭이다.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 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녘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은 아무데도 없었

어요. 아니, 있긴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북에 이른 명준은 남에서 변 선생에게 해댔듯 혁명을 팔아 살아가는 제 아버지에게도 일장연설을 내뱉는다. 허나 남에서처럼 북에서도 역시 그는 구체적 변화를 위한 뭔가는 일궈내지는 못한다. 입바른 소리만 하다 제 풀에 제가 지쳐버리는 것이다. 결국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죽어서는 안된다는 금언만 제 가슴의 묘비에다 새기고 한 마리 수컷으로 은혜에게 달려가고 마는 것이다. 이십대 초반, 이런 그의 모습은 나에게 비겁하게 보였다. 허나 이미 웅덩이에 고개를 처박고 구정물을 마셔버렸던 당시의 나는 그를 더 이상 비겁하다 말하지 못했다. 제대 후 일년 정도 저 멀리 내달리는 국방색 지프차만 보아도 내 걸음은 빨래를 씹은 탈수기처럼 멈춰섰다. 서커스의 짐승처럼 경례를 하려는 내 오른손을 왼손이 붙잡는다. 그래 잊자. 처음부터 신성한 것은 없었던 것이었고 이미 모든 것은 가벼워졌으며 나는 어디서 광장의 쓰레기를 주어다가 어떻게 내 밀실을 꾸밀지 생각해야 해. 그러기에도 너무 바쁜 민간인의 하루하루잖아. 개미의 심장으로 숨쉬고 원숭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며 코끼리의 뇌로 생각하던 그 시간들 나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고 오늘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철이 든 것이다. 그러다 몇 년이 흘렀고 그렇게 옛날의 선배들을 다시 만났다. 누구의 때늦은 결혼식이었으리라, 신랑신부는 괌으로 떠났고 선배들은 이차, 삼차에 그러다 노래방에 이르렀다. 자연스럽게 노래방도우미가 나왔고 내 옆에 앉은 그녀는 예쁘게 웃으며 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 그녀의 소개 그리고 그녀의 말투, 그것은 나의 것과 달랐다. 명준을 무참히 짓밟았던 S서 그 형사의 것과 닮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연변의 아가씨라고 하였다.

마음은 몸을 따른다. 몸이 없었던들, 무얼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지라는 소원이, 우상을 만들어 냈다면,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 낸 것인지도 모른다.

난 외로워서 거기에 따르듯 흘러갔고 우린 외로워서 그녀들을 불렀을까? 그렇다고 믿고 싶다. 허나 그녀들은 왜 거기에 와 있었던 것일까? 그녀들도 외로웠던 것일까? 이제 s제 나라가 아닌 이 곳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 진정한 변화를 꿈꾸던 혁명가의 딸들이 이 좁은 밀실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한 자는 침묵해야 하는 법, 나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생명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세. 고맙게도 그 연변아가씨는 나의 노래를 따라 불러주었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개처럼 감싸 안으며 학자처럼 생각했다. 어쩜 통일이 되면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당신의 경쟁자들이 북에서 남으로 구름처럼 몰려올지도 몰라. 그럼 당신은 당신의 소개말을 바꾸어야겠지. 따뜻한 남쪽나나를 찾아 북에서 내려온 이북처녀라고. 그날 난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 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 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적을 인민에게 가리켜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한다.

2005년, 영미의 댄스와 태식의 색소폰이 일상을 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대를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것이 어느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밤이 없는 서울의 거리마마, 지방의 각 도시마다, 붉은 십자가의 수만큼이나 전국방방곡곡 사찰의 수만큼이나 가득한 망령의 거리를 난 걸어가고 있다. 이제 이 거리에서 마주치기 무서운 건 S서의 그 형사가 아니다. 그의 웃음을 배워버린 나의 얼굴이다. 마음은 몸을 따르기 때문일까? 사라져버렸다던 적은 내 안에서 뿌리내려 자라고 있었다. 너무 철이 들어 버린 것일까? 그래서 나는 외로운가? 우리의 조죽 대한문국은 그래서 이렇게도 고독

한가?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고독해서 그랬겠지.”
“누가?”
“김일성 동무지.”

김일성 동무의 고독과 이승만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만나 그 많은 사람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야 했다면 오늘날 다시 이 대한민국의 고독 때문에 연변의 아가씨들은 이곳에 심청이 되어 팔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한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모든 것은 잊혀졌고 쉬이 화해했던 까닭이다. 통일은 그래서 가깝고도 참 먼 제3제3국 같다.

언제부터일까, 나의 삶은 수동태가 돼 있었다. 주어를 잃어버린 채 목적어만이 저만치 앞세워진 나의 삶은 곧잘 나를 생략해버리곤 제 혼자 내달리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나의 비겁한 걸음은 항상 제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그때마다 길바닥에 팬 웅덩이 속엔 먼저 도착한 그 녀석이 기다리듯 날 비웃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을 오가다 결국 타고르 호에 오른 이명준 역시 그 갑판 위에서 파도를 헤집고 부조처럼 떠오른 녀석의 비릿한 웃음과 마주해야만하지 않았을까? 어디에서도 능동태일 수 없었던 이명준, 어느 순간에서도 주어일 수 없었던 그 남자, 작가 최인훈이 세상에 그를 떠나보낸 지 올해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그가 떠나버렸던 이 땅에도 역사의 강은 도도히 흘러 반백의 시간을 견뎌왔다. 때론 봄 햇살로 은빛 수를 놓은 듯 제 몸을 빤작이기도 했지만 이내 곧 다시 도륙의 피가 폐수처럼 스며들고 무고한 이가 소리 소문 없이 강바닥에 생매장 되었다. 그래서일까 최인훈은 이명준, 그를 온전히 보내지 못했다. 칠흑의 밤마다 인도양 어느 바다 심해에서 시작된 그 남자의 소리 없는 소리가 작가를 잠에서 뒤흔들어 깨웠던 것일 게다. 그리하여 오늘 광장이 막 서른에 이른 반

도의 청년 앞에 놓여져 있다. 제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이 책이 제 마음을 흔드는 까닭을 그 서른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아마도 그 소리 탓인 듯하다. 그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 수백의 심해를 뚫고 수천수만의 바다를 건너 오늘 다시 이 땅에 제 마음의 강에 이른 그 파문, 이제야 그 소리의 정체를 그 서른은 알 것만 같다. 명준이 그 흰 것들의 검은 눈동자에서 보았던 것을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서해버린 제 자신의 얼굴, 그 녀석의 소리 없는 웃음 소리였다.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 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명준이 최인훈을 잊지 않았듯, 작가가 광장을 잊을 수 없었듯, 그리하여 결국 그녀들이 명준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에게 날아왔듯, 사랑은 과거를 잊지 않는 자들만의 것이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오늘의 사랑은 없다. 사랑이 없는 오늘에겐 미래도 없을 것이다. 어둠의 심해에선 아무 소리도 날 수 없는 법이다. 통일은, 그래서 너무 멀고도 먼 제3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인 것만 같다.

독서감상문 일반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선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숲

아침에 영어학원을 가서 한 시간동안 영어로 대화를 하고 친구와 돌아오는 길에 수다를 떨며 윈도우 쇼핑을 하다가 어찌어찌하여 서점에 들어갔다. 뭘 하나 살까? 하고 둘러보다가 공지영의 새로운 소설이 나온 것이 기억이 나서 제목도 모른 채 점원에게 부탁해서 책을 집어 들었다. '아, 이거구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전에 <고등어>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서 별로 망설임 없이 계산을 했다. 집에 와서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책을 펼쳐들며 조금 읽다가 러닝머신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러닝머신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하도 울어서 벌겋게 충혈된 눈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말았다. 노트북을 켜기 전까지 잠깐 나는 러닝머신, 영어학원, 쇼핑 같은 것들을 잊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책을 읽는 내내 처음 느껴보는 차갑고 어두운 기분으로 나는 어떤 부류일까를 생각했다. 윤수와 같은 부류? 아니면 유정과 같은 부류? 아니면 그냥 중간? 처음엔 중간쯤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책을 더 읽어갈 수록 유정과 같은 부류인 것 같았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을 무렵에는 윤수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 윤수와 유정의 삶이 왕자와 거지처럼 멀어보였는데, 결국 비슷한 한 인간들의 삶처럼 거리가 좁아져버렸다. 마법 같은 소설이다. 펜이 강하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토록 쉽게 나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줄은 몰랐다. 교도소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시절 주민등록증 받을 때 빼고는 한번도 경찰서도 가본 적 없는 내가 사형수의 심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으니 나대신 교도소에 다녀와

준 작가가 고마웠다.

이 소설엔 낯선 소재들이 많다. 사형, 사형수, 살인…. 차라리 이혼이라면 이젠 흔해져서 내가 겪거나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사형이란 단어는 나 같은 사람에겐 영화나 소설에만 접할 수 있는 드문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이제까지 잘 모르고 또 상상정도로만 그쳐왔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사형에 관해 여러 가지를 관해 알게 되었고 윤수가 사형수가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윤수라는 인물은 솔직히 소설적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 가정폭력, 어머니의 가출, 부모로부터 버림받음, 왕따, 집단 폭력 등등. 이러한 불우한 환경을 거쳐 가면서 공식대로 지금의 범죄자 윤수가 탄생되었다. 이점 때문에 이 소설에서 윤수가 너무 소설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다. 윤수가 겪은 불우한 환경들 중 하나이상 경험한 경우 윤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높다고 한다. 이 소설에서 정신과 의사인 유정의 외삼촌은 아예 '99퍼센트'라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뒤에는, 아이 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를 어른들이 있어요. 짜기라도 한 것같이, 모두 저래요.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이 다시 폭력을 부르죠"라고 말한다.

나는 미술치료사이며 일주일에 한번 씩 복지관에 나가서 학교에서 정학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오는 일명 문제아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미술치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윤수가 겪은 환경중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폭행, 금품갈취 등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믿기지 않는 그냥 중고생일 뿐이다. 모니카 수녀가 말한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나는 또한 얼마 전까지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기관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을 약 일년 반 동안 미술치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술치료를 왜 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 아동들 역시 '그냥'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림이나 생각, 행동에서 폭력의 징조는 수시로 나타났다. 내가 만난 이 아동들이 만약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학

대를 받다가 좀더 자라서 복지관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이 되고, 또 그 애들이 커서 또 한명의 윤수가 될 수 도 있다는 것, 이러한 확률이 99%라는 점. 이 말은 윤수는 더 이상 소설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정말 무섭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런데 나를 더욱 무섭고 가슴 아프게 하는 점은 이러한 아이들이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만큼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윤수같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어서 아직까지 내가 '이혼' 보다는 '사형'이란 말을 영화 속의 일처럼 여기게 된 것일 지도 모른다.

결국 어떻게 보면 윤수는 범죄자가 될 운명의 완벽한 환경에서 예상대로 자라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발견하고 이 인간쓰레기 같은 놈에게 사형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하는지 만을 놓고 이 나라는 흥분했던 것이다. 사형선고를 내리는 주체가 국가라고 한다면 범죄자 윤수가 탄생하도록 만든 국가가 과연 책임 없이 윤수만 벌할 수 있을까? 국가가 윤수를 내버려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면 과연 범죄자 윤수가 탄생했을까? 또한 한편으로 국가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땐 국가가 사형선고를 내려도 좋은가? 이 세 가지 물음은 부족한 지혜의 나로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과연 올바른 답은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소설은 사형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시각을 담고 있다. 한때 범죄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쓰레기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유정, 사형수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모니카 수녀, 법이 있는 한 범죄자는 응징되어야 한다고 믿는 검사, 죄는 밉지만 인간으로서 용서해주려고 노력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사형수의 집행을 늘 보며 생명의 사라짐을 안타까워하는 이주임, 사형수가 쓰레기 이전에 사실은 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사형을 막아보려는 또 다른 유정. 이들은 윤수를 놓고 사형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다. 이들을 생각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형제도에는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효력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사형제 폐지 시 드는 비용문제.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생각하기 힘들고 또한 비용을 떠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팽팽한 대립만 계속되고 있다. 왜 그렇게 두 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소설 속 이주임의 말처럼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제 존치론자가 되고 사형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제 폐지론자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것은 소설 속 유정의 절규 섞인 물음, 즉 '…인간쓰레기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식 목을 매달아놓으면, 그건 살인이고, 그렇게 살인한 나를 데려다, 살인자라고 목을 매달면 그건 정의인가? 똑같이 인간이 인간을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똑같이 인간을 죽이는데, 하나는 살인이 되고, 하나는 집행이 되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어 그 죄 값으로 죽고, 하나는 승진을 하는 거…… 그게 정의인가?'라는 물음에 나는 분명하게, "아니야, 유정아, 그건 정의가 아니야"라고 수없이 대답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이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지키고 있는 것 뿐 일거라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만 이러겠지 라고…….

그렇다면 유정이나 모니카 수녀, 이주임이 아닌 사형집행을 앞둔 당사자 윤수의 입장은 어떠할까? 윤수는 처음 사형이 선고 되었을 때는 죽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던 날은 살고 싶어서 버둥거린다. 윤수의 마음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에 대해 윤수가 남긴 블루 노트에 그 해답이 적혀있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윤수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여 한번도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너무 늦게 받고, 또 늦게 주는 바람에 윤수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사형수에게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사랑. 만약 윤수가 유정이나 모니카 수녀에게서 받은 사랑을 사형수가 되기 전에 받았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윤수가 영등포에서 앵벌이를 하기 전이나 동생 은수가 눈이 멀기 전에, 그들이 술에 취한 아빠한테 매맞고 있을 때부터 진작 사랑을 받았었더라면, 그랬더라도 스물일곱 살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

르고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수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하는 논란보다도 윤수가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에 가슴 아프고, 왜 나는 윤수같은 아이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하질 못했나 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어린 윤수는 큰 것도 아닌 그저 작은 사랑만이라도 받았으면 했을 텐데 그것을 주지 못하여 이 아이가 결국 차가운 수갑을 차고 사형대로 올라갔구나 하는 생각과 또 다른 사형수들도 윤수처럼 사랑, 또는 그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희대의 살인마라는 유영철도 무엇인가를 받지 못한 채 지금도 윤수처럼 사형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이고 영영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갈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일찍 줄 수 있다면 수많은 윤수들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사형 제도같은 비극의 비(非)정의는 사라져 사형제도 존폐의 논쟁도 같이 끝나지 않을까.

나는 내일이면 다시 영어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골라 집었던 이 소설을 읽으며 잠시나마 느꼈던 차갑고 어두운 기분과 내가 윤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여겼던 생각만큼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술치료를 할 때나 거리를 걸을 때, 영등포 전철역 바닥에 누워 은수와 함께 신문지를 덮고 자던 그 어린시절의 윤수가 떠올라 미처 주지 못한 내 사랑의 미안함에 지금처럼 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올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살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에게 존재조차 모르게 살아가는 또 다른 윤수들. 지금이나마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해 준 이 책과 작가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독서감상문 일반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송수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숲

1. 안타까운 기억 하나

"교장선생님 다른 데 말고 꼭 거기에 써주세요.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게, 여름이면 해가 너무 뜨겁지 않게, 거기에 지붕을 덮어주세요. 혹시 형을 기다리고 서 있는 어린 동생이 비 맞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형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나 자신은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거나,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다. 아니 나의 제자, 나의 피붙이에게는 그런 배려를 했을지언정 이 책에 나오는 윤수나 은수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번도 손 한 번 제대로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 더군다나 사회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받은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았을 냉대, 무관심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정윤수의 삶의 기록인 '블루노트'를 읽는 내내 가슴이 너무나 시려왔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한 아이가 떠올랐다. 그 아이도 이런 삶을 살았을 터인데.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가슴 한 편이 싸해 진다.

몇 년 전, 결혼식을 하루 앞둔 어느 토요일. 결혼식에 가져갈 짐을 아침부터 급하게 꾸려 시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연히

라디오 뉴스에서 들려오는 기사가 문득 우리 반 그 아이의 이야기가 맞을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무섭도록 강하게. 모중학교 모양이 아버지에게 재떨이를 던져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단 몇 분도 안 되는 아나운서의 그 몇 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고, 온 몸이 떨려왔다. 결국 올 것이 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며칠 전에 형사가 그 아이가 특정한 시간에 학교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러 왔을 때도 그 아이가 설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 당시에는 빡빡한 학교 일정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저런 개인사로 인해 그 아이에 대해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 아니 일부러 잊고만 싶었다. 내 힘으로는 그 아이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 아이는 우리 학교에 정을 못 붙였다. 수시로 가출을 했고, 심지어 지방의 공장에 가서 한 달 남짓 일을 하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강릉까지 놀러갔다가 그 곳으로 전근 간 체육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돌아오기도 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토요일까지 반납하며 친구를 동원해 지하철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아이를 잡아놓고 큰 소리로 훈계를 하기도 했었다.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때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에 그 아이를 배려할 수도 없었다.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라면, 아니 그 아이 집에 같이 가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아마도 나 또한 겉모양만 다 큰 어른일 뿐, 그에 걸맞는 성숙한 인격은 아직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아이가 알콜 중독자이며 끼니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빈사상태인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종료된 뒤였다. 그 아이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소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1년 남짓 교육을 따로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난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면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가볼 엄두도 내질 못했다. 그 때 나 또한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 아이에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근접해서는 안 되는 흔히 보통사

람들이 '범죄자'에게 갖고 있는 선입관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얼마나 무섭고도 지독한 편견이던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으로 규정지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집단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정윤수가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동생과 함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소년원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 둘러쌌을 때 윤수와 은수가 맛보았던 극도의 불안이나 치욕도 몰랐을 것이고, 어른들의 앵벌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당하다 눈이 멀어 죽어 가는 동생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절함이나 세상에 대한 끝없는 배신감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살인자에게도 그만의 '양심'과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윤수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고, 조금만 배려해주었던들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또한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기억은 없다. 단지 빨리 그 아이에게서 벗어나서 덮어버리고픈 충동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정윤수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아이가 떠올랐던 것은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2. 사회적인 공명(共鳴)의 필요성

우리들은 그저 이 책에 나오는 문유정처럼 나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세상이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일상의 지루하고 남루한 삶조차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유정은 정윤수라는 사형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

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면 처음으로 자신의 맘을 열어 이야기했던 정윤수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오열하고 만다.

윤수에게 닿을 수는 없지만 그와 아픔을 같이 하고픈 유정은 자신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다. 어렸을 때 부잣집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온 유정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유정이 꼬리를 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정의 잘못으로만 생각했던, 그래서 사촌 오빠 보다도 더욱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윤수를 위해 힘겹게 용서를 했던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기에, 산간 오지 학교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얼마 되지도 않는 사비를 털어 학용품을 사서 보내고 그 아이들과 새 해 일출을 보고자 했던 윤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볼 수 없는 윤수를 위해서 유정이는 온 몸을 다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삶을 간절히 살고자하는 한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 그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일출이라도 볼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줄 수 없는 것일까? 안타까웠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사회 제도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도 비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것이었다니.

문유정이 어머니를 힘겹게 용서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공명(共鳴)'이었다. 함께 울림. 유정이가 윤수를 위해 자신의 치부도 어머니에게 드러내었듯이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도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형 폐지론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피릿 베어'라는 소설을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원형평결심사제도'라는 것을 시행한다. 절대로 혼자

서는 도망칠 수 없는 무인도에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 놓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소설 속에서 문유정이 말한 것처럼 살인한 자에게 다시 법적으로 공인된 사형이라는 이름의 '살인'으로서 보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한 번 쯤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같이 마음을 마주 울릴(공명)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모니카 수녀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꺼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슬퍼하고 이해해주던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3. 다시 일상으로

뜨거웠던 여름, 계곡 산 그늘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책의 내용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만 하고 있었다. 그저 약간의 교훈을 가미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하며 가볍게 책장을 넘겼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다. 특히 문유정이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마구 때리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답답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곧장 달려오지 않는 경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쩌면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답답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쳤던 것이다. 어딘가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의 제자들에게도. 적어도 그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그걸 어느 누군가에게 말하

고 이해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울림에 더욱 힘을 실어 사회적으로 크게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정윤수 같이 안타까운 생명이 삶을 아예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윤수의 동생처럼 비오는 날 오갈 데가 없어 형을 기다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운동장 가에 지붕' 하나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배려 정도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또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에게 작으나마 '그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같아요

평등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차별이 없고 모두 같다는 뜻으로 나온다.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성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를 했다. 예전 우리나라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시집을 가면 하늘에다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고 또 빌었다고 한다. 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아들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 딸을 낳으면 심하면 쫓겨나기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 아들을 낳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산부인과에 가서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고 딸이면 낳지 않는 엄마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끼리 짝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왜 아들만을 고집해야 할까?

나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야 할 일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남자도 유치원 선생님, 간호사,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자도 포크레인 기사, 운동사범이나 경호원, 트럭운전사분들도 있다.

남자가 할일과 여자의 할일이 구분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한 번도 실망을 하거나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여자인 엄마이고 내말을 잘 들어주고 믿어주는 언니도 여자이다. 우리는 설거지도 함께하고 청소도 맛있는 음식도 함

께하며 친구처럼 지낸다. 엄마는 나와 언니가 여자라고해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원빈아 세상에는 자유와 방종이 있단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고 방종은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자유로운 사람과 방종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차별이 없고 모두 같이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남녀의 평등이란 말도 이제는 없어져야한다. 본래부터 사람은 똑같은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세상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자라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자이며 엄마의 딸이며 예쁜 언니의 사랑스러운 동생이다.

자유를 가진 여자이다.

생활글 초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범계초등학교 5학년 한승지

후손에게 물려 줄 자연환경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고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코로 숨 쉬고 사는 것,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옷은 사람이 숨을 쉴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삿ㄹ도 잊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연에서 얻어지는 공기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시골 할아버지댁에 다녀왔을 때, 그곳은 산에 나무도 많고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고 무당벌레와 같은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날 아침에 할아버지와 산을 올랐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댁 산 앞으로 길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길을 만든다면, 산에서 돌들이 떨어지고 위험하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던 야생동물의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그런 일이 요사이 일어난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과 공기의 오염을 걱정하며 사람들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산길을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며 산길을 깎아내 길을 만들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름모를 들짐승들과 이름모를 울창한 나무와 풀, 꽃들이 맑은 자연 그대로의 것들로 있기를 바라지만 훼손돼가는 자연환경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산을 깎아 골프장을 만들고 펜션을 만든다며 할아버지의 한 숨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동생이, 또 먼 훗날 후손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지키고 보호해

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 줄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부터 고쳐야겠습니다. 샴푸보다는 머리를 식초를 헹궈야 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인 쓰레기, 그중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차지 한다는 사실을.....

밥을 먹을 때도 과도한 상차림을 피하고 적당한 양을 먹으며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음식도 알맞게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요즘 엄마는 세탁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자연이 준 그대로 빨래를 건조시키고 그렇게 자연환경을 보호하려 하십니다. 엄마가 요즘 빨래가 건조가 되어 나오는 세탁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빨래를 말리냐는 아빠의 물음에 세탁기를 돌리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스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인어아이나 장애인들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환경 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원인이 이상한 공기를 마셔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며 백여년 전 아름다운, 풍요롭던 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자연환경을 되살려야 겠다고, 그래서 마음 놓고 산과 들에서 뛰놀고 안심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며 손자 손녀에서 손자손녀에게 후손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생활글 초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중흥초등학교 5학년 안승현

자투리땅 꽃 가꾸기 운동

“휴, 엄마. 오늘도 또 학원에 가야하나요?”

“음, 그렇지. 가야하고말고. 우리 공주님이 오늘 따라 왜 이러시나?”

나는 가기 싫은 학원에 가기 위해 툴툴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나는 버스 정류장 가는 게 너무 싫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배기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 마을과 우리 학교는 여천 산업단지 공장들이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이다.

가끔 숨을 쉬다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를 들이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찝찝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면 더 심한 것 같다.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한다. 그럼 아마도 우리 학교도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럼 나의 모교가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정류장까지 가다가 도로가 바위틈에 자라는 철쭉들이 힘없이 시들어 나한테 ‘숨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쉬겠어요. 제발 저 좀 살려 주세요’하는 것 같았다.그런 모습들이 정말 불쌍하고 딱하게 보였다.

“아이씨,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차들이 계속 방귀만 뿡뿡 뀌고 가니까, 또 숨이 막혀 괜스레 짜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몇 분이 흘러 드디어 버스에 탔다.

익숙하게 버스 카드를 찍고 맨 앞자리 좌석에 탔다.

버스를 타면서 여러 풍경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봤던 풍경은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어느 한 공장 앞에 '자투리 땅 꽃 가꾸기'라는 팻말이 씌어져 있었고 자투리땅에는 새싹들과 어린 묘목들이 보였다.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공장 바로 앞에서 저렇게 식물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저 땅에서 난 식물들이 정류장에서 난 철쭉처럼 힘없이 다 시들어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 땅에서 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버려진 자투리땅을 아름답게 꾸며 줄 것만 같은 희망도 갖았다.
난 학원에 가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그 것을 학원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다.

"얘들아, 얘들아! 내가 버스타고 오면서 '자투리 땅 꽃 가꾸기'라는 것 을 봤거든. 아직 꽃과 나무들은 안 자랐지만, 곧 무럭무럭 자라서 남아 있는 자투리땅을 아름답게 꾸며 줄 것 같아.그런데 그 곳이 공단 지역이라서 식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 돼. 정류장에 있는 식물들도 자동차 배기가스를 많이 마셨는지 누렇게 시들었거든. 너희들 생각으로는 그 자투리땅에 있는 식물들이 잘 자랄 것 같니 아니면 다 시들어 버릴 것 같니?"

"음. 내 생각에는 잘 자랄 것 같아.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그 식물들이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랄 거라고 생각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희가 말했다.

"내 생각은 달라. 그 곳은 공단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식물에게 해로운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될 꺼야. 그럼 식물들은 모두 시들겠지."

상희의 말을 듣고 동현이가 반대 했다.

아이들은 '자투리 땅 꽃 가꾸기'에 대해 한 바탕 토론을 했고, 찬성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하였다.

그 속에서 난 사회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어 수업을 했다.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 벌써 학원이 끝났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싸, 빨리 집에 가야지.”

학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또 다시 버스 정류장에 갔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희는 자투리땅에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했고, 동현이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지?

내 생각으론 말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동차를 적게 이용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면 자투리땅에는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쓸모없다고 생각한 자투리땅에는 큰 변화가 생길거야.

암, 그렇고 말고 틀림없이 잘 자랄 거라 생각해.’

그렇게 한 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저 멀리서 61번 버스가 오고 있었다.

자투리 땅 식물들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생글 생글 웃으면서 버스에 올랐다.

만약 자투리 땅 꽃 가꾸기가 잘 실천된다면 난 앞으로 버스 정류장 가는 게 좋아질 것 같다.

매일 매일 꽃들로 만발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바라보며 버스를 기다리게 될 테니까.

생활글 초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중흥초등학교 5학년 이기남

방독면 쓰던 모교(母校)는?

우리 학교 교정(校庭)에는 30m 쯤 되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람하게 솟아 있고, 아담한 소나무 두 그루가 학교 건물 좌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80세 되신 우리 반 아름이네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한다. 무더운 여름엔 더위를 식혀주고 가을이면 은행이 주렁주렁 열려 보기만 해도 즐거웠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와 소나무도 이젠 머지않아 이사를 가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수산단업체의 각종 공해와 폭발 위험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학교와 마을은 여수 국가산단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대형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박스나, 기름을 싫은 대형 화물차들이 밤낮으로 씽씽 달리는 것만 보아도 아찔하다. 1968년부터 시작한 이래 오늘도 수많은 산단업체들의 굴뚝에서 뿌우연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는 날이면 매쾌한 냄새가 기분 나쁘게 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들으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실 사물함에는 방독면이 한 개씩 들어 있다. 민방공 훈련 연습을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방독면(防毒面)이 아니다. 머리가 아프고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궂은 날에는 교실과 복도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도 못하고, 답답한 방독면(防毒面)을 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空氣淸淨器)가 설치되어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또 있을까?

지난 2월말에는 평여 마을에 사는 우리 반 혜원이가 이사를 갔고, 4월초에는 두암 마을에 사는 소영이네가 이사를 갔다. 이제 1학

기 말이 되면 서너 명의 친구들이 이사를 간다고 한다. 나도 내년쯤에는 정든 모교를 떠나야 할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졸업을 하고 갔으면 제발 좋을 것 같다.

작년 이맘때인가 공장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화재가 발생해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죽은 일이 있었다. 불을 끄다가 죽은 소방관 아저씨도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다. 그 때는 나도 이렇게 죽는 줄만 알았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응급조치는 되었지만,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무서워서 소름이 끼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잦은 폭발사고로 우리 마을 초롱이네 작은 엄마는 아기를 유산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관지염, 두통 등의 각종 질병을 비롯하여 폭발에 대한 불안증상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우리 반 하영이 아빠는 몸이 불편한 하영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 돌보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주대책 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책임을 맡아서 산단업체, 여수시와 환경부, 환경연합시민단체 등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신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그런데 지난 해 먼저 뿔뿔이 흩어져 이사 간 월하, 평여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땅을 그저 떠날 수 없어 텃자리 부근에 망향비를 세우고 떠나갔다고 한다. 우리 마을과 나의 모교(母校)가 없어지면 내가 다니던 우리 학교 동창생 친구들은 추억의 동창회 모임을 어디서 가지란 말인가? 그리고 내 생활기록부는 어디로 갈까?

아쉬운 마음이 나를 슬프게 한다.

부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함께 더불어 잘 살길 소망해 본다. 그리고 산단업체 아저씨들도 더 이상 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날 때면 가끔씩 와봐야겠다. 내가 자라던 흔적을 보고 싶어서이다.

생활글 중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저동중학교 1학년 윤고운

교문 너머의 드라마

찰싹!
뺨 맞는 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꽤나 더운 한여름의 아침인데 공기 가르는 이 뺨 맞는 소리가 우리를 얼어붙게 한다. 학교가 정한 머리 길이에 딱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큼의 머리를 기른 우리 반 남자애가 머리 꽁지를 붙잡힌 채 끌려간다. 길다 할 것도 없는 머리 꽁지를 붙잡힌 채,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불쌍한 개처럼 질질 끌려간다. 질질 끌려간다. 찰싹하던 소리가 우리 귓전을 맴돈다. 우리 가슴을 매질한다. 찰싹. 찰싹. 찰싹.
인권은 교문 앞에서 죽는다. 평화도 교문 앞에서 죽는다. 민주도 교문 앞에서 죽는다. 자유도 교문 앞에서 죽는다. 그 어떤 가치라도 교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모두 교문 앞에서 죽는다.
빨간색 운동화를 신은 아이도, 신주머니를 들고 있지 않은 선배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 아니, 이미 죽었다.
벌을 선다. 조금 흐트러지면 매가 날아온다. 교칙을 몰랐다는 아이의 말도 신주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선배의 말도 넥타이를 매는 걸 깜빡했다는 나의 말도 그들에겐 변명일 뿐이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는 그 변명을 그들은 무시한다.
종이 쳤다. 조회가 시작된다. 이제서 교문을 들어서는 애들은 벌을 서겠지? 지각생은 벌을 선다. 교칙이다. 헌법이 무슨 문제인가, 교칙이다. 지각생은 운동장을 뜀뛰고 벌점을 받는다. 교칙이다.
종이 쳤으니 지금까지 벌서던 이들은 교실로 향한다. 뛴다. 교실 문을 열면 우리는 죄인이다. 교칙을 몰랐던 아이도 신주머니를 잃어버린 선배도 넥타이를 잊은 나도, 학교를 위반했기에 우리는 모두 죄

인이다.
신성학교제국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노예들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 잔인한 해는 이미 떴고 교문은 이미 열렸으며 우리의 발을 신성학교제국에 내딛었다.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여섯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괴롭다. 하루가 시작된 것이 너무 괴롭다. 어제는 어제에서 끝났어야 한다. 괴로운 생각들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더 괴롭다.
1교시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기계이다. 로봇이다. 노예이다. 우리는 하나다. 칠판 위에 떡하니 붙은 급훈처럼, 우리는 하나다. 너와 다른 나라는 건 교문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기계들은 책을 편다. 대답하는 로봇은 대답을 하고 받아 적는 노예는 받아 적는다. 이렇게 여섯 시간을 버텨야 한다. 참겠다. 우리는 참겠다. 아니, 참아야 한다. 앞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을 한다. 우리는 듣는다. 하지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의 여유조차도 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미 부진아다. 우리는 그저 들을 뿐이다.
아, 수업이 끝났다. 우리는 숨을 쉰다. 소리를 내지른다. 미치도록 그리워했었던 걸음을 걷는다. 창문으로 가서 공기 내음을 맡는다. 친구와 얘기를 한다. 어제 인터넷에서 뜬 거 봤니, 봤지 그걸 못 보는 애가 어딨냐, 정말 황당하지 않아? 자유다. 작은 자유다. 그 외에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게 교문 안 신성학교제국의 방침이다. 우리는 뛸 수 없고 칠판에 학생의 신분으로 분필을 댈 수 없다. 이러쿵저러쿵 하라는 게 많다.
2교시가 시작된다. 자세가 불편하다. 다리를 조금 벌린다. 곧 선생님의 질책이 날아든다. 너, 여자애가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어떡하니, 여자애가 말이야 좀 여성스럽게 행동할 수는 없겠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평등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여자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라고? 이건 평등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할 수 없다. 교복은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성스럽게 만든다. 화가 치민다.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다리를 벌리고 편하게 수업을 듣고 싶다.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청바지에 티셔츠 달랑 입고서는 시원시원하게 수업을 듣고 싶다. 자, 윤고운, 2번 문제 정답 말해 봐. 와장

창! 꿈은 깨진다. 나는 당신과 하나요, 나는 대답을 하겠소. 대답을 한다.
다시 쉬는 시간이다. 다시 작은 자유가 시작되고 복도에서 뛰던 아이가 학생부 선생님과 살짝 부딪치고 등을 강타당하고 벌점을 받고서는 벌을 선다. 선생님은 화가 난다. 신성학교제국의 귀족에게 감히 네가 어떻게 내 어깨를 밀치냔 말이다. 똑같은 차림의 똑같은 표정의 똑같은 머리를 한 학생 셋이 지나가며 인사를 한다. 화가 풀린다. 음, 다들 똑같군. 어쩌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안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3교시가 시작된다. 딴 짓을 하고 있던 내 짝이 앞으로 불려나간다. 야, 너 이리 나와, 너 감히 수업시간에 지우개똥 장난을 해, 너 내가 항상 봐주고 있었더니 계속 그러니, 응, 대답 해봐. 네, 선생님, 대답 잘도 나오겠네요, 이제 그만 하세요, 속으로 외친다. 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은 그만하지 않는다. 교탁 잡아, 너 같은 애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한 번 피할 때마다 한 대 더 추가야, 알아들어, 빨리 교탁 잡으란 말이야! 보통이다. 우리는 태연하다.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난무하는 폭력을 보고도 우리는 괜찮다. 길들여졌다. 이제 개는 주인이 돌돌 말은 신문지 뭉치를 들고 돌진해도 흥분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몸을 내 준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또 다시 쉬는 시간이 되고 또 다시 수업이 시작되고 점심시간이 시작된다. 우르르 달려 나간다. 한심한 우리들은 선생님들의 눈총을 받는다. 하!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남은 두 시간 동안 치를 전쟁을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해 본다. 오늘 배운 게 뭐지. 가물가물하다. 설화의 종류랑 특징, 또 뭐가 있더라. 아, 함수. 맞아, 함수 배웠지. 그리고……. 생각하기를 관둔다. 이제 뇌도 무뎌졌다. 생각을 하면 부진아가 되어가는 신성학교제국에서는 뇌가 녹슨 게 정상이다. 위안을 삼고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는다. 삼킨 눈물이 위에서 밥과 뒤범벅이 된다. 고통스럽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생각을 해야 해. 급식판을 비우고 수저통에 수저를 넣고 물을 몇 모금 마신 뒤에 생각을 한다. 수많은 모순들이다. 우리는 배운다. 개성을 키우고 자아를 발견해야 하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 장래에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개성? 자아? 미래? 생각? 장래? 성공? 빌어먹을! 당신들은 이 말을 실천할 기회를 줬어? 줬냐고? 혼자 외친다. 이미 닳을 대로 닳은 용기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 그렇게 자유시간이 지났다.
5교시가 시작되고 6교시가 간다. 아, 끝이다. 집에 갈 생각에 우리는 흥분해 있다. 우리 노예들은 곧 신성학교제국의 교문을 나설 것이다. 그리고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6교시가 끝나는 종이 들린다. 몽롱하게 들린다. 담임선생님의 종례는 중요치 않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담임에게 알랑대는 반장이 보인다. 가식적이다. 정말 싫다. 위선자들.
마침내 종례도 끝나고 해방이다! 땅으로 꺼질 것만 같은 무거운 가방과 신주머니를 들고 뛰는 듯이 걷는다. 아직은 교문 안이라 조심한다.
교문을 나섰다.
아, 뛰자. 날자. 가자.
이런, 다리가 굳었다. 다리는 체육 수행평가 때 움직이라고 있는 거다. 눈물을 먹는다. 건조해진 눈에서는 눈물조차 굳어버렸다. 아니, 심장이 굳은 걸까?
우리는 굳어버렸다. 무감각한, 목석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수많은 맷집 좋은 목석들이 신성학교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윙. 치잉. 스윽 스윽. 공장 돌아가는 소리. 교문 너머의 드라마.

생활글 중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마산합포여중학교 3학년 이은주

유채꽃 밭과 코스모스 길

3년 전,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서 하동 금성면의 면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하동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나는 아직도 처음 하동에 발을 디딜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초록의 푸르른 녹음 , 그곳에서 나오는 상쾌한 공기, 밤이면 들리는 풀벌레와 귀뚜라미들의 노랫소리,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섬진강 물결,,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내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동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나와 어머니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그곳이 너무도 마음에 든다며 만족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는 주말만 되면 하동 곳곳의 명소를 여행하며, 우리만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찾았는데, 아버지께서 보이질 않으셨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금성면 면사무소를 찾아갔고, 나는 면사무소의 밭뜰과 도로변을 따라 삽과 호미 등을 손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직원들과 꽃을 심고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놀라서 쳐다보는 나를 발견한 아버지는 밀짚모자 아래 검게 그을린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하고 묻는 나의 질문에 “항상 볼 때마다 이 앞의 경관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유채꽃밭을 만들기로 계획했다”며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다.

그 곳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로 가는 길목에도 '코스모스길'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며 설레이는 듯 반짝이며 설명하시는 아버지의 두 눈에는 진정한 하동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었다.

가만히 서 있는 날 보며 아버지께서는 숙소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나는 같이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버지를 졸랐고, 결국 나도 밀짚모자 하나를 덮어쓰고 구슬땀을 흘리며 유채꽃밭을 가꾸는 데 동참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거의 반나절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 보내, 몸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내가 심은 유채꽃 씨앗이 내년 봄에 만발할 것을 상상하니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우리만의 비밀의 정원을 꾸미는 기분이 들어 나는 어린아이마냥 기분이 들떴다.

다음 날, 도착한 화력발전소로 가는 길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황량해보였고, 이 길 주변에 새색시같은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일을 하기도 전에 힘이 솟았다.

아버지께서는 "하동발전을 위해 기금을 받아 진행하시는 일"인만큼 , 열심히 하라며 격려해주셨고, 나는 이 사업의 계획안을 작성하시고, 앞장서서 구슬땀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우리가족들과 면사무소의 직원들 모두 뜨거운 태양아래 힘을 모아 코스모스 모송을 한 송이씩 심어갔고, 비록 나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코스모스를 길가에 채워 넣고 길을 보니 비록 코스모스가 어려서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렇듯 사랑스러운 코스모스를 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3년이 지난 이번 여름방학, 우리 가족은 우리의 땀이 서려있는 '유채꽃밭'과 '코스모스길'을 보기 위해 또 한 번 하동을 찾았다.

여름이라 유채꽃들은 아직 피지 못했지만 코스모스들은 만개할 가을을 기다리며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방긋 지으며 잘 왔다고 손 흔드는 꽃들의 환한 인사에 어디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버지께서는 그 후, 하동을 떠나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셨지만, 같

이 꽃을 심었던 직원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찍어 아버지께 보내온다.

나는 항상 그 사진들을 볼 때면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서린다.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라는 네 글자의 플랜카드를 통해 홍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깊은 감성에서부터 그 본질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느끼면, 경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 후로는 자연스레 너무도 소중해서 지켜줘야하는 존재로 새로이 다가온다.

나는 그런 순수한 감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살아 있는 한, 자연은 늘 그래왔듯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모두 용서하고, 푸근하게 감싸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활글 중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광주동신중학교 1학년 김영우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우당탕, 쿵쾅!”
“아이고~ 이놈이 또 지랄병이 났네!”
“에고, 에고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 주소!”
그동안 잠잠했던 옆집 망나니 아들의 행패가 또 시작되었다. 이 소란은 월례행사처럼 치러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 말리고 경찰 아저씨들이 출동한 뒤에야 끝을 맺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게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이가 40살도 넘은 늙은 아들과 그의 홀어머니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건,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장가도 안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주 착한 효자가 이사 왔다며 칭찬이 자자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뭔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곧바로 옆집으로 달려가셨고, 술에 취한 채 온 집안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까지 때리는 못된 아들을 뜯어 말렸다. 다음 날, 그 못된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의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은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하며 어머니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술주정을 못하게 말리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입술을 찢어놓기까지 했다. 나중에 그의 불쌍한 홀어머니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비는 바람에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옆집의 싸움에 절대 끼어들지 않으셨다. 그 대신 못된 아들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셨다.

결국 오늘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이 멈추고 잠잠해졌다. 나는 아들한테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함께 사시는 옆집 할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됐다. 못된 아들을 감옥에 보내버리면 몸과 마음이 편하실 텐데, 왜 그런 수모를 당하며 함께 사시는 걸까?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았더니,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다. 또한, 비록 못된 아들이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다, 술을 안 먹었을 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홀어머니께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됐다. 아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함께 사시는 할머니나, 그런 못된 아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찰이나,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이유든 절대 부모를 때려선 안 되며,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 종족을 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어찌 때릴 수 있겠는가?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며칠 전, 컴퓨터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녹색신호등이 깜박이는 것을 보고, 지금 건너기엔 늦었다고 판단되어 다음 신호 때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보이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너편 횡단보도로 들어서시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시간 내에 못 건너실 텐데……'라고 생각하며, "할머니, 오시면 안돼요! 돌아가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손을 빙빙 돌리며 되돌아가시라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내가 소리치는 걸 듣지 못하셨는지, 아님 빨리 건너오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잔뜩 굽은 허리를 더 낮게 굽히고는 종종걸음을 치셨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횡단보도를 반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은 벌써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자 차들은 할머니 같

은 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경적소리를 시끄럽게 울려대며 사납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차창을 열고 “아니, 이 할망구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해대며 지나가기도 했다. 그 누구도 차를 세우거나 할머니의 안전을 생각해주지 않았다.

겁에 질린 얼굴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결국 횡단보도 중간에 철퍼덕 주저앉으시고 말았다. 그리곤 다음 녹색 신호등의 불이 켜지고 나서야 차들은 멈춰 섰고, 할머니께서는 눈치를 보며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께서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실 수 있도록 부축해 드렸다. 그런데 할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내 손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 얼마나 놀라셨으면 무더운 여름에 몸까지 떠실까. 아님, 노여움 때문이실까?

솔직히 나는,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의 깊은 속뜻을 모른다. 그러므로 참다운 민주주의가 뭔지, 인간답게 살 권리가 뭔지, 자세히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저 남들이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거나, 혹은 책에서 그것들과 비슷한 내용을 읽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다. 솔직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내가 뭐가 뭔지 다 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노인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준 그 분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6·25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외에도 4.19혁명과 부·마 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처럼 독재정치의 탄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셨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도 다 쏟아 부으신……, 그 분들! 우리는 결코 그 분들의 피와 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요 민주주의는 아닌 듯싶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는데,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웃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나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노인의 인권을 바로 세워주는 일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소래중학교 3학년 이수혁

[5.18 민주항쟁] 역사캠프를 다녀와서..

이번 역사캠프는 5.18 민주항쟁으로 역사적 유혈 사태가 있었던 전라남도 광주였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학교도 안가고 신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가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지만 돌아올 때는 그런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느꼈다.

아침 8시, 공부방 선생님과 친구들은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그 시간은 등교 시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루쯤 반 친구들과 달리 놀러간다는 마음에 우리는 친구들을 보고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막 웃어주었다.

처음 도착지는 망월도 국립묘지.

국립묘지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차장에서 차례로 기다리며 묘지로 향했다. 예전 초등학교 때는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에 갔었는데 국립묘지에서 했던 일은 먼저 간 조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본다거나 수도 없이 늘어선 묘비를 보며 참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전부라 입구부터 빨리 끝내고 출발해야지..., 하는 지루한 생각으로 보고서에 남길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러나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서 참배를 하고 자원봉사선생님으로부터 5.18 민주항쟁이 있었던 10일간의 일들이 새겨진 벽화 설명을 듣고는 점점 철없는 마음으로 답사에 참여한 내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벽화 뒤로는 5.18 민주항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많은 사람과 또한 아무 연관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경찰과 군의 제압으로 살해되어 5.18 민주항쟁이란 이름 안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

다. 그들의 시신을 옮겨 그 곳에 묻어준 것인데 살해된 과정이 너무도 끔찍했다.

첫 희생자, 김경철씨는 단지 농아라는 이유로 맞아 돌아가셨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그 분은 억울할 것 같다. 분명히 경찰이 그 분께 뭔가를 물었을 것이고 그 분은 말을 못 듣고 못하니 우물쭈물하시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신 것이다. 그 분 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영을 하던 어린 아이를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죽이고, 도망가는 인파 속에서 벗겨진 고무신을 주우러 되돌아선 할머니,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 회사원 등 죄를 묻지도 않고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들의 모습은 묘지에서 나와 유영봉안소라는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귀엽게 생긴 어린이, 학생,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사진으로 남아 괜히 미안해지고 마음이 짠해왔다. 또한, 그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현장사진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끔찍하지 사진 속에선 아직도 화약연기가 나는 것 같고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소리, 총소리, 대포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묘지를 빠져 나오자 그 분들을 위한 추모의 글을 써서 끈에 달아놓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곳에서 많이 행복하세요!'라는 글을 쓰며 오늘 같은 시대를 만들어주신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일이 많아져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망월동 5.18 국립묘지를 나와 광주의 역사거리 금남로로 향했다. 국립묘지에서 금남로까지는 약2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이르렀을 땐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까봐 서로 뭉쳐서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 한가운데에서 시민과 군인이 싸우기 시작했다. 시민은 공수부대(신군부세력, 군인)에게 맞고 쓰러지고, 투쟁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고, 결국에는 구경하던 시민들도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들이 천막 뒤로 후퇴하자 시민들과 우리는 그들을 따라 천막으로 향했다. 천막 뒤에는 시민들의 승리를 축복하려 준비된 락페스티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펼쳐졌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마치고 11시가 넘어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숙소에는 우리 공부방 말고도 다른 공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적어 씻는 시간도 많이 걸려 우린 그 사이를 이용해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게임도 하고 배가 고파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그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TV에서나 봤던 OX퀴즈를 하는데 상품이 어마어마했다. 주로 5.18 민주항쟁에 관한 퀴즈였는데 나는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OX를 옮겨 다녔다. 그 덕분에 600명중에 150명 안에 드는 영광이 왔고, 본 게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본 게임은 골든벨이였다. TV에서 봤던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되어 문제만 잘 풀면 쉽게 우승까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4호기(김범식)의 힘을 빌려 2라운드까지 갔다. 그때까지는 아는 문제가 대다수라 행운이었지만 2라운드부터는 좀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튀는 답을 써서 인터뷰라도 해볼까 싶어 특이한 말을 답 옆에 적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인터뷰는 우리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사하게 끝나버렸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독수리1호(나)는 양심의 활을 맞고 떨어졌다. 그 뒤로 공부방의 막강한 4호(김범식)은 거의 끝까지 가는 듯 하였으나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비록 아쉬운 탈락이지만 좋은 추억이었고 평상시 기본적인 역사 알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 시흥까지는 거리상 일찍 출발해야 한다며 차에 올랐다.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과 5.18 민주항쟁에 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 수준으로는 5.18 민주항쟁에 관한 사건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웠다.

늘 아빠께서는 5.18 민주항쟁 때 전차를 끌고 광주에 들어가 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아빠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했었던 군인이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 때는 그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어쩌면 공역을 가한 군인이나 경찰도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진정한 민주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게 되어 1박2일의 역사 캠프가 나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해 준 것 같다.

2005년 5월 23일.

생활글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상문고등학교 2학년 이동수

색칠 공부

중간고사가 끝나기도 무섭게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다. 과목별 등급으로 눈이 갔다. 거의 내 손가락 갯수와 맞먹는 숫자들... 석차백분율을 보았다. 열 명 중의 한 명, 다섯 명 중의 한 명... 나쁘지 않은 수치다.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백 명 중의 한 명'만을 용서해 줄 뿐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교실에 남자 밖에 없다는 현실은 뒷전이었다. 그저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이야 날 어떤 눈으로 보던 신경이 쓰지 않았다. 아니 머리 속이 멍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1년만 더 있었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친구들의 반응도 썩 좋지는 않았다. 이름도 모를 대학들이 오고 갔고, 장난삼아 "어묵디자인학과 가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농담은 그저 처절해 보일 뿐이었다. 나는 3학년도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시뻘건 동그라미가 있는 종이에 검은 색 펜으로 색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게 그저 허망할 뿐이었다. 단 하루, 그 종이에 색칠을 하기 위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을 왜 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가며 까지 공부해야하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얼마 전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교육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수능은 등급으로만 표시해 반영비율을 크게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고교등급제 얘기, 특목고 자퇴생 증가 얘기로 연일 언론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내 바로 아래 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만일 재수를 한다면 난 더 큰 타격을 입는 제도였다. 부풀려진 내신으로 인해 한 반에 평균 90점을 넘는 학생이 수두룩했으니 말이다. 재수하는 학

생들을 위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말은 믿지 않았다. 기존의 대입제도와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완충이란 없으니까. 이 둘은 극과 극을 달렸다. 마치 혁명과도 같았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대입제도가 바뀌길 바라는 어리석은 믿음만 가질 뿐이었다.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하는 내가 아닌데도 새벽 별 보고 집을 나가서, 밤 별을 보며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제는 익숙하다. 어쩌면 가끔 학교를 쉬는 날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나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고 그 안에선 우린 꼼짝없이 눈과 펜만 굴릴 수 있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다. 어떤 반은 점심시간에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했다. 내가 힘들다면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학교는 '0교시'와 '강제야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도적인 강압만 없을 뿐, 사회적 강압은 언제나 존재했다. 일렬종대 선착순 한 명만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남에게 뒤쳐지는 것은 곧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는 첫 번째 관문인 대학은 들어가야 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명문대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나를 억압하고 또 나에게 강요해왔다. 머리속에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남들보다 자기주장도 강했고, 책도 많이 있으면서 글도 제법 잘 쓰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시험 한 문제 한 문제에 울고 웃고, '단순 암기'식의 교육을 비판하면서도 그 방법을 따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어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볼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다. 면접을 준비하거나 논술시험 전에 대비해서 잠깐 동안 사회현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상은 단순한 암기나 공식의 응용이 대부분이다. 시를 쓴 시인 자신도 모르는 공식과 법칙을 시에 적용한 문제가 나오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작문 시험에도 암기가 절대적이다. 정치도 법과 사회도 사회문화도 모두 객관식이다. 답은 하나고 오답은 네 개다. 사회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관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똘레랑

스가 필요하다는 말은 고등학교에선 통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답은 하나다. 우리는 그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부단히 노력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논술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물론 논술을 함에 있어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그에 맞춰서 쓰는 것이다. 올 초에 논술학원을 갔더니 프린트를 몇 장 주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었다.

1. 제시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글을 쓸 때 반드시 언급할 것
2. 참신하되 보편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쓸 것
3. '나는', '내가'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갈 것
기타 등등...

모범답안과 비교해가며 '논술의 법칙'에 내 생각을 맞춰가며 쓰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글이 여느 학생들의 글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글이 되어버렸다. 머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막상 뻔한 글을 쓰고있는 나를 보노라면 주변에서 보고 배운게 무섭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뻔한 논술을 쓴다고 학생들을 지적하는 선생님들과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할 뿐이다.

소설 중 프랑스 작가 쌩 떽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가장 좋아한다. 잔잔하면서 아기자기한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단' 같은 그 발상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였기에 나올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린 왕자'가 나왔었다면 그 작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마치 이상 시인처럼 말이다. '이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독하게 형식적이고 객관적이다. 프랑스의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가 논술형태인 반면 우리나라 대입시험인 '수능'이 단지 동그라미에 칸을 메꾸는 오지선다형인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데 어찌 그것을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정답과 오답을 나눌 수 있을까. 사회의 보편적 시각에 순응하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시험문제를 푸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을 수 없이 했다.

수능이 1년 남은 만큼,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입시전략을 세워보았다. 외국어는 무조건 단어 암기, 언어는 되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고전의 경우는 작품 암기, 수리 중요 공식은 유도과정을 외우고 그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며 다양한 유형 익히기. 친구들도 별반 다를 것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시험에서 답은 하나이니까.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단은 낙오자가 되니까.

머리속으로 끝없이 되뇌이고 나에게 훈계하였다. 외워라, 외우지 않으면 넌 최고가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답을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색칠 공부를 위해 문제집을 무수히 풀 뿐이다.

생활글 고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서영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찬향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제4회 전국 토론대회를 다녀와서-

평소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길 좋아하는 나는 이번에도 또 다른 경험을 위해 뛰어들었다. 무작정 자신감만 가지고, 더 넓은 곳을 보고 싶은 그 욕구 하나만으로 토론대회라는 것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올해 5월 18일 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북클럽에서 광주역사를 돌아보는 탐방 계기를 갖게 되어서인지 나에게 민주화운동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토론대회란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의 주저도 없이 예선에 참가했고, 본선진출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했었다. 직접 체험해보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이 나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제는 통일. 사실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별반 다른 느낌 없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내 삶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통일이라는 단어를 외쳐봤는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이번 대회는 반성의 계기로 다가왔다고 봐야 맞는 말이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부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꾸만 통일이 멀게 느껴지는 바람에 조사하기를 많이 주저했지만 돌아보니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고 우리사회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뿌듯하기만 하였다.

2박 3일간의 토론대회라는 이색체험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 날 다함께 했던 5.18민중항쟁 상황극과 야간묘지참배, 열사님께 편지쓰기 등의 경험들은 다시는 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이었

다. 60명의 학생들이 각각 한분의 열사님들께 편지를 썼는데 나는 양영진 열사님께 편지를 썼다. 86년 부산대학교 입학 후 학생운동에 헌신, 88년 8월 10일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셨다가 그 해 10월 10일 부산대학 건물 5층 난간에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투신, 운명하신 분. 비록 얼굴도 모르는 분이시지만 나는 무서운 밤중에 촛불하나 켜두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열사님의 희생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웃으면서 지내는 거라고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고,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만 같아 흐뭇해지곤 한다. '촛농이 가득 떨어진 그 편지지가 지금도 열사님이 잠드신 곳에 계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 같다.

토론대회는 둘째 날부터 시작했는데 통일에 대한 주제를 세분화 시켜서 해방전후 정세와 분단의 원인, 분단이 우리사회(인권)에 미친 영향,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방안의 세 가지로 나누어 토론을 하였다. 원탁토론 형식으로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각각 1시간 30분씩 토론을 하였는데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인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쟁쟁한 토론이었다. 나는 찬탁과 반탁에 관하여서는 찬탁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분단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보기도 하고, 분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장에서는 레드콤플렉스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화제로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레드콤플렉스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에서는 내가 여러모로 생각해본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중립국 통일을 예로 들어서 최소한 부작용을 줄이는 통일, 남북 연합체를 만들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 민족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 등 준비할 땐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야기들이 토론장에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주장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들 서로가 토론 중 울분을 토하며 말했기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일제 반민족 세력의 청산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실 그들 세력만 제대로 청산하였더라면 이 나라에는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이 자리 잡았을 것이고, 발전 가능성도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일제

청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우수의 언론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고위직 장관 등의 막강한 힘을 소유한 당사자들은 그러한 논점들을 강력하게 제쳐버리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자들 모두는 일제 청산은 늦었더라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고, 청산 방법에 관해서도 단순히 명단만 밝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현실적인 방향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의견을 합쳤다. 이런 장소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 일제 청산과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을 이야기 하겠는가. 스스로도 정신적인 키가 한 뼘은 자란 듯 했다.

또한 토론 중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내의견만이 옳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의견을 포용할줄 아는 능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 토론이란 훌륭한 언변만 늘어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끌어안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일이란 생소한 주제를 다시 한 번 꺼내서 재인식하게 해준 이번 대회는 물론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반성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지만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 뻔 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생활에의 적용까지 이끌어 주었다. 토론대회에 참가한 것도 크나큰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나는 더 큰 용기를 배워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 최종 결선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통일과 풍요로운 국가 건설' 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 팀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정부의 진전 없는 통일정책들 보다는 청소년들이 내세운 신선한 정책들이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산가족을 북에 두고 계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 통일에 대해 간절히 염원할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한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기껏해야 통일을 반대하고만 있는 보수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만 알지 민족을 생각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들은 이 사회 곳곳에 손을 뻗치고 있지만 결국 나라를 진흙탕으로 몰고 들어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직접 통일운동가가 되어, 정부 고위 관리가 되어, 지도가가 되어 통일에 대해 마음껏 논해본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쓰임 받는 큰 그릇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나라의 정치판을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한숨을 쉬

던 나,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나,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는 잠시 접어두고 싶다.

“One man with courage makes a majority."

‘용기 있는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 용기 있는 한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일수도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질 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듯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나의 작은 경험담을 소개한다면 몇 달 전에 정읍통문(정읍지역 인터넷 신문) 사무실에 들렀다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본적이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그 시계를 내 눈으로 보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시계를 한번 봤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한 뒤에야 제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 그 시계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물을 볼 때 다 각도로 두 번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야 그때의 다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 데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찰력 있게 살펴야겠다는 다짐이 다시 한 번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안다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통일, 민주, 평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인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고, 외쳐야만 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2박 3일의 얼마 길지 않은 대회였지만 나는 그런 뜻 깊은 주제들을 외치는 법을 배웠다. 어쩌면 단순한 용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감 없고 소극적이었던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5.18 자유공원에서의 민주화운동 체험과 통일에 관한 토론 등의 소중한 경험은 내 고교시절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을 확신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난 그런 사람을 꿈꾸고 있다. 이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만히 앉아 내 머리위의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폴짝폴짝 뛰어올라 더 넓은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고 싶다. 벌써부터 그 하늘이 내게 다가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생활글 고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김소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했던, 중학교내 농성의 기록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애국조회나 반성조회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을 너무 빈번하게 듣다 보니 나는 아무 의심 없이 학교는 학생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점은 대부분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적어도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16일 동안, 학교는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2004년 2월 6일에 배부된 가정통신문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생활외국어 시범학교였고, 나를 비롯한 2학년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생활외국어를 분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배우는 외국어에 따라 1반부터 5반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로 편성되었고, 6반부터 11반은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반이었다. 물론 배우고 싶은 외국어의 선택 기준은 학생의 자율적 의지였는데, 보호자 확인란도 있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그렇게 분반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생활 외국어 수준별 학습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가정통신문 윗부분에는 한 번 선택한 반은 중간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쓰여 있었으며, 밑 부분에는 심화와 기본, 보충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회신서가 있었다. 우리 학년 학생들은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자신의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원하는 반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지 고민도 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였다.
2004년 3월 2일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고 나는 선택한 대로 심화반에 배정받았다. 중국어반 다섯 중 두 반이 심화반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택한 반에 배정받았는데, 기본반과 보충반을 신청한 학생 수가 반을 나누기 애매했기 때문에 그 두 반을 선택한 아이들은 통합된 '기초반'에 배정받았다. 학생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만족하였고 같은 반 학생들끼리는 같은 반을 배정받기로 선택하였다는 동질감에서 유달리 쉽게 친해졌다.
학생들은 처음에 시험 과목인 생활외국어를 다르게 가르치면 대체 시험은 어느 반을 기준으로 보는지 불안해했지만, 생활외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은 심화반이나 기초반이나 별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자 생활외국어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배우거나 너무 덜 배울까, 혹시 기초반이라고, 심화반이라고 차별하면 어떡하나 은근히 걱정하던 학생들은 안심했다. 두 반은 그저 학생들의 의지에 의해 나누어진 것일 뿐이었다.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들 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한 달이 흘러갔다.

2004년 3월 30일 점심시간, 갑자기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반을 재편성한다는 것이었다. 나와 친구들은 뜬금없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다. 심지어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적어도 8교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들 그랬다.
8교시가 끝나고 종례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다. 손에는 가정통신문이 한 뭉치 들려 있었다. 가정통신문에는 일부 학생들이 비하감을 느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재고의 권의에 의하여 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편성을 결정하였으며, 예년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다시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외국어로 반을 나누지 않는 대신 국어와 영어, 수학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하며 다른 과목은 학급 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그저 당황할 뿐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째서 2월에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주며 반 편성에 대하여 알려 주었을 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고, 보호자 확인란은 무엇하라고 있는 것인지, 그 몇몇 학생들의 몇몇 학부모님들은 통신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을 해 주셨는지, 재편성을 할 것이면 빨리 할 것이지 반 친구들끼리 정이 들 대로 다 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수준별 이동 수업 및 학급 내 수준별 학습을 할 것이라니, 수준별 이동 학습이나 학급 내 수준별 학습을 하면 학생들이 비하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가정통신문 밑의 학부모 의견란은 무엇인가? 학생 당사자의 의견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재편성을 끝마치고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반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의견을 듣자는 학교 측의 속셈은 무엇인가? 왜 재편성을 하기 전에는 의견을 묻지 않다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난 후에 묻는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이 모든 것을 재편성 전에 알려 주지 않았던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물었다. 어째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가, 대체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왜 말해 주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위에 쓰인 모든 것들을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도 모르신다고 답하시고, 학생들의 재편성된 반을 일러 주신 후,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셨다. 선생님의 능력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정든 반 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선생님의 눈가에서도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싶지 않아 30분여를 교실 문을 잠근 채 농성했지만 지친데다, 내일 학교에 오면, 학교 측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교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재편성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었다.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게시물 수는 이틀 만에 200여 건을 넘었다.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물론 실명으로였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 컴퓨터 앞에 30여 분을 꿈쩍하지 않고 앉아, A4용지 두 쪽에 걸친 긴 글을 써내려갔다. 중도에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나는 재편성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째서 학생들이 흥분해 있는지 써내려갔으며

내가 알고 있는 온갖 고사를 총동원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정당하게 표명한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비민주적인 일은 없을 터이고, 나는 그렇게 학생의 발언을 외면하는 비민주적인 학교에서 생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2004년 3월 31일, 우리는 재편성된 반으로 가지 않았다.

모두들 원래 반으로 등교했다. 선생님께서도 말리지 않으셨다. 이 재편성은, 애초에 모든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모두들 생각했던 것이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만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과 학생들은 생각 끝에 서명 운동을 하고, 각 반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교장 선생님께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였다. 우선 우리는 재편성에 반대하는 학생 서명 운동을 하였다. 다음으로 학급 회의를 열어 재편성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우리 반에서 의견을 가장 조리 있게 펼치던 아이를 뽑아 보내면서, 제발 우리의 사정을 잘 좀 알려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각 반에서 그렇게 한 명씩이 뽑혀서 교장실로 내려갔다. 학생회 위원들도 재편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함께 내려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 전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내려갔던 아이들은 한 시간 후에야 상기된 얼굴을 한 채 돌아왔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실 앞에 아이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도 문조차 열지 않으시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흥분했다.

“우리가 바로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어째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학교가 보여야 할 태도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 나가는 것이 나라라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째서 불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학교 아닌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
그렇게 학생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였다. 스피커에서 짧은 방송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방송 내용은 전날 나눠주었던 가정통신문에 있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재편성할 것을 최종 결정하셨다는 교장 선생님께서 방송하시는 것도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다.
아무리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매정하게 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학교 측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었고 아이들은 다시 내려갔다. 그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어떤 학생도 교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등교할 때, 재편성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곳곳에 붙였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마저도 떼어가셨다.
그뿐이 아니었다. 학교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게시물이 군데군데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된 글들은 전부 실명으로 쓰인 것이었고 욕설이 포함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롱성 글이나 짧은 글만이 남아 있었다. 내 글도 삭제되어 있었다. 분명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나의 글이 학생들의 처지를 잘 설명했다고 하시며 좋은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에 확인해 보니 지워져 있다니. 약 50여 편의 조리 있는 글들이 똑같이 삭제되어 있었다. 나는 학교 측의 이유 없는 게시물 삭제에 반발하여 글을 다시 올렸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학생의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지우다니, 명백한 발언권 침해였다.

2004년 4월 1일 만우절, 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황 설명은커녕 정든 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대해 우리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한 마디 위로의 말조차 없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주신다고 각 반 대표를 교장실로 부르셨지만, 반 재편성은 교육청의 지시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학교 측의 입장을 합리화하며, 벽의 재편성 반대 관련 낙서만을 트집 잡으셨다. 반 대표가 무엇을 말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의견은 들어 주시지 않으셨다.
반 대표가 울면서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은 팔을 걷고 낙서를 지우러 나섰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트집잡힐 만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한다며 학생들은 낙서를 지우기 위해 과학실에서 알코올을 얻어 왔고 멀리 떨어진 가게에서 시너를 사 왔다. 우리들 마음속의 상처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박박 문지르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며 한 마디 하셨다.
“아휴, 냄새.”
그 한 마디에 우리는 분노했다. 우리의 의견은 들어 주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 합리화하며, 자발적으로 오점을 고치는 학생들에게 칭찬은커녕 그런 말밖에 못 하냐고 말이었다. 그 날 점심시간 우리는 운동장에 모였다. 학생들이 전 반을 돌아다니며 동참을 호소했다. 전 학년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는 원래 반대로 줄을 서서 구호를 외쳤다.
“재편성 반대! 교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재편성 반대! 저희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치자 학교 전체가 울렸다. 다른 학년 교실의 창이 열리고 모두들 빼꼼히 쳐다보았다.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다. 이것이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우리는 목이 터질 듯이 외치고 또 외쳤다. 그 외침은 의견을 무시당한 학생들의 절박한 함성이었다.
이삼십여 분이 지났을까, 교감선생님이 나오셨다. 우리의 의견은 재편성을 철회할 것과 학생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자 교감선생님께서 흥분하셨다. 후일 알았지만 사과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진실의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그것을 몰랐고 교감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시겠다며 건물로 들어가셨다.
두어 시간이 흘렀는데도 교장선생님께서는 나오시지 않으셨다. 농성에 지친 우리는 다음 날 무언가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해산했다.

2004년 4월 2일, 우리는 또다시 원래 반으로 등교했다.

며칠간의 재편성 사태로 인해 진도가 너무 늦어진 관계로 우리는 수업을 받았다. 평화로웠다. 이대로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는 약 5일 동안 이렇게 생활했다.
그 사이 교장선생님이 학교방송을 통해 사과하셨다.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미안해 보이지 않으셨다. 말뿐인 사과 받아서 뭘 하냐며, 많은 아이들이 계속 재편성을 거부하고 농성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농성의 의의는 사라졌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도를 받아냈으니까.

2004년 4월 7일,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원래 반으로 등교했다.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살벌했다. 복도에 선생님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다. 내가 새로 배정된 5반 앞을 지나가는데, 5반 담임선생님께서 나의 목덜미를 잡고, 문을 연 후 교실로 밀어 넣으신 후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셨다. 마치 감옥에 처넣어진 기분이었다. 교실에는 나처럼 잡혀 온 학생들이 몇몇 있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께서는 계속 학생들을 잡아 넣으셨고, 예전 5반이었지만 지금은 5반이 아닌 학생들은 가차 없이 떠밀어 버리셨다. 우리에 갇힌 동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수업을 받았다. 그것은 다른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편성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예전 반의 꿈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해명하신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저항해 봤자 쓸데없는 일이었다. 우열반 편성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교장선생님의 해명이었다.

2004년 4월 14일, 새로운 가정통신문이 나왔다.

방송을 통한 학생들에의 사과에 이어 학부모들에 대한 사과였다. 이로써 재편성을 둘러싼 분쟁은 종결되었다.

* * *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연 초의 반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우리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재편성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 일이 모두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2주일 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당하게 대응하였으며,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어째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절실한지, 시민의 요구를 국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피부로 느꼈다. 그 농성을 겪으며 우리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모두 기억할 것이며 어렵지 않게 민주 시민이 될 것이다. 또한 나를 비롯한 나의 동창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쓰디쓴 경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즉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실천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든 실제 정치 현장에서든,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주의의 부재는 설사 그것이 하루일지라도 큰 아픔을 낳는다.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 것이다.

혼란스러웠던 그 2주일은 중학생이었던 나에게 그 전에는 너무도 당연한 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었던 너무도 소중한 날들이다. 나는 오늘도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 더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빌며.

생활글 고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남한고등학교 3학년 전미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아주머니, 내일은 꼭 방 값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실 셋방에 살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찾아와 어머니께 방값을 하루만 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한 겨울에도 소매 끝이 다 닳아버린 스웨터 하나만 입은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 부부는, 내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 달이나 밀려버린 방 값을 꼭 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 하고 있었다.
백일이 갓 지난 여자 아이와 조촐하게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부부, 한국에 들어온 지도 5년이 다 되어갔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곤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가족들에게 매달 월급을 붙였던 은행계좌와, 1년 전 잃었다던 남편의 엄지손가락, 지긋지긋한 가난일 뿐이었다.
“공장 사장이 두 달이나 밀린 월급을 안 주고 있다고 하더구나 …….”
터벅터벅 외국인 부부가 계단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께서 한 숨 섞인 목소리로 내게 말하고 계셨다. 허공 속에 떠 있는 먼지와, 눅눅한 지하실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공장에 앉아 구두를 만들고 있을 부부였다. 똑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국인 월급의 반도 받아 내지 못한다는 부부에게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조차 없는 듯 했다. 웃음소리도, 행복도, 그리고 생계를 이어나갈 돈도 그 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을 가지고 지하실에 내려 갈 때면, 현관문 밖으로 익숙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노랫말에 섞인 울음소리가 흘러나와 내 귓가를 맴돌곤 했었다. 슬프다, 힘들다라는 말을 잊어버린 듯이 일을 하던 그 부부였지만, 현관 밖으

로 세어 나오던 그 노랫말과 울음소리는 나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고 있는 듯 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처음엔 그 들을 피했고, 가난한 나라의 그들을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쳐다보곤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부끄러운 짓 이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미한 불빛 하나 비춰주지도 않은 채, 그들을 계속 다른 길로 떠밀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있었다. 그들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웃음을, 행복을, 가족을, 손가락을,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주머니를 보며 눈물짓고 있는 그들을 또 다른 길로 밀러 넣고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부끄러웠다. 몇 달 동안 밀린 월급을 주지도 않은 채 일만 시켰던 그 공장 사장이, 밖으로 나가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길을 걸을 때 고개를 들고 걸은 적이 없었다는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한국인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이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끄러웠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미안함에 고개가 숙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여자, 어머니는 카디건 위로 도드라진 여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며 다음에 기회가 된 다면 꼭 한번 다시 보자며 눈물을 흘리셨다.

“빨리 이 땅을 떠나버리고 싶어요, 맨 처음 한국을 왔을 때 이런 꿈을 꾸곤 했어요. 한국인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꿈이요, 난 밤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퉁퉁 부운 눈으로 다음 날 아침 일을 못한다고 사장님께 혼났었어요. 무서워요 여기 한국이…….”

어머니는 여자의 손에 손수건을 건 내주며, 눈가에 번져가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 내셨다. 어눌한 한국말로, 그리고 눈물 섞인 한숨으로 어머니와 그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 여기 일 모두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힘내요,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한 아기가 있으니 먹고 살 걱정 없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알았죠?"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며,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남자가 손가락이 4개뿐인 오른 손을 내게 건 내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조용히 남자와 악수를 하며, 침묵 속에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었다. 피부색이 다르지만, 태어난 곳이 다르지만 우리는 똑 같은 사람이고, 이웃 이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와 나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었다.
"잘 가세요……."
나는 입 안에서 더 이상 뱉어지지 않는 말들을 다시 안으로 삼켜내며, 눈가에 번져 진 눈물을 닦아내던 그 부부에게 짧은 인사말을 건냈다. 아직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다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그 부부는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 속으로 발을 꿰어 신었다. 그들 옆으로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짐 가방이 있었고, 몇 시간 후면 출발한다는 필리핀 행 비행기 표도 주머니 속에 꽂혀있었다. 이제 정말 그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들의 뒷모습엔 왜 길게 늘어진 그림자조차 무거워 보였던 것일까, 축 늘어진 어깨를 이끌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지나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그 들을 피해야만 했던 것일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짧았던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당신들을 넘어트린 것 이었군요, 미안해요…….'
대답 없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였다는 것을, 그저 태어난 곳이, 그리고 피부색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절친한 이웃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존중해 주는 인권 속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우리의 병을 뽑아 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차별을, 인식을, 모순들을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평등한 인권으로 없앨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하실 셋방,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외국인 노동자 부부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불평등한 인권 속에 비춰져 있을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 넣어 본다.

생활글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김양희

‘1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게 있네’

“이런 빨갱이년들은 씨를 말려 버려야해!”
“시팔, 쌍년놈들아 니들 때문에 내 좆대가리가 썩었어”
“저런년들은 뼈째 갈아 마셔야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 험한 욕은 처음이었다. 정신이 몽롱해 잘못 들었겠지 귀를 의심하기도하고 꿈은 아닐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들은 것도 아니고 꿈은 더더욱 아니었다. 또 씨를 말린다며 곤봉으로 마구 배를 찌르고 머리가 터지도록 때리고 그랬다.
그게 바로 10여 년 전인 1996년, 연세대에서의 일이었다.
그리고는 지난 7월 10일.
평택에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였다.
유모차를 타고 나온 아이도 있었고 아빠 목에 무등을 타고 온 아이도 있었다. 썬글라스를 끼고 온 젊은 아가씨도 있었고 아이를 업은 엄마도, 아빠도 모두들 그곳에 미군기지가 확대되는 것만은 안된다는 마음을 담아 모였다.
더운 여름날이었는지라 어쩌면 짜증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평택을 찾았을 지도 모른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개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전철을 타고 오기도하고 기차타고 계란을 까먹으면서도 왔다.
집에서 느긋하게 오락프로그램을 보며 즐길 수도 있었는데,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 수도 있었는데 이 땅의 평화를 바라며 일요일을 반납하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은 참 잔혹했다.
막아야 하는 게 경찰의 임무라지만 “연습 하던 대로 해” “쫌 만

더해, 맞지만 마라 무조건 패라” “저건 적이야” “한발 앞으로 가서 무조건 패라”
 무차별적인 전경들의 진압에 아이하나가 방패에 맞았다. 아이 엄마는 눈이 뒤집힌다.
 자그마치 병원에 실려 간 사람만 89명, 행사장이었던 대추초등학교에서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소속의 의료봉사단에게 간단한 처치를 받은 사람은 수백에 이른다.
 그런 와중에도 평택 미군기지 바로 옆에서 한가롭게 앉아 노는 아이도 보였다.
 아..10년 전 내 눈과 귀를 의심했던 일이 또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건 하나 없었다.

 예전,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나는 소위 법에서 말하는 단순 참가자로 구류 3일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천여명이 검거되고 수 백 명이 구속됐으며 수 천 명이 불구속입건 된 상황이었으니 수치로 봤을 땐 별거 아닌 일이었다. 30년을 넘게 산 나에게 단 3일은 너무도 미미한 일이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잊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도 내가 치매에 걸려 내 정신을 하나하나 놓더라도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사건이 있고서 3년 정도는 항상 악몽을 꿨고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가슴이 떨려 숨어버렸다. 소위 닭장차라 불리는 경찰차가 멀리서 보여도 헛구역질이 나왔다.
 연대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린 그저 나갈 수 있기만을 빌며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하는 글을 창밖에 내걸었다. 우리는 너무도 순수하게 남과 북은 서로 만나야 한다, 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그것만을 바라며 행사에 참가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가 그저 이곳에서 나갈 수 있기만을 빌었다. 너무 순수하지만 또 순진하게도....
 단전단수가 된 상황에서 며칠을 굶으면서도 초코파이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옆 사람을 위한 배려로 입만 대곤하며 장정여럿이 먹는

데도 몇 번이고 돌려 먹었다.

열흘 이상을 굶다보니 기력이 없어 널부러져 있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우리를 잡기 위해 헬기 18대를 띄우고 특공대는 출구를 모두 불 질러가며 우릴 독안에 든 쥐로 몰아 잡았다. 그 해 몇 십 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나 사람들이 울부짖는데도 단 한 대도 뜨지 않았던 헬기였다.

그 순간부터 우린 중죄인이었다. 너무 맞아 고막이 터진 사람, 얼굴조차 못 알아 볼 정도 부운사람, 옷에 피범벅인 사람도 여럿이었다. 그때 당시 경찰의 압박으로 김준배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도 육체적으론 아니지만 정신적으론 그와 함께 죽었다.

스무 살의 젊음들은 유린당했다.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에 손을 얹고 굴비 꿰듯이 줄줄이 걸어 나오는 우리들에게 그놈들은 발길질에 곤봉질을 해댔다. 나뒹굴어지는 사람은 줄에서 이탈했다고 흠씬 맞았다.

그저 맞는 것뿐이 아니었다. 그 꽃 같은 스무 살 처녀들에게 그 더러운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댔다. 경찰서에 와서도 우린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들으며 잠한 숨 못자고 시달려야 했다. 애국하는 놈들이 애국가조차 모르냐며 아무나 하나씩 지목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게 하고 한 음절이라도 틀리면 마구 때렸다. 지금도 난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데 가사를 좀 잊었으면 해도 잊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

또 그들은 여학생들에게 이쁘면 이쁜애가 왜 그런 짓을 한건지 반성해야 한다며,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때렸다. 혼자 먼저 내려 와있던 후배에겐 여러 놈들이 성추행을 해 죽고 싶다 했다.

조서를 쓰는 동안, 난 경찰에게 “전경 놈들이 때린다고, 난 무서워서 다시 전경들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그 때 난 머리를 맞아 피도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게서 되돌아 온 말은 “얘 아주 위험한 애네, 어디서 맞았다는 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어?”였다. 그리고는 또 저승사자 같은 전경 놈들이 지키고 있는 지

하 지옥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오후가 되서야 훈방으로 풀려나는 사람, 즉심을 받고 구류를 받는 사람, 이틀 만에 불구속입건으로 나가는 사람, 구속되는 사람이 나뉘어졌다.
난 우리와는 완전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양복 잘 빼 입은 검사에 의해 즉심을 받고 구류 3일을 받았다.
오히려 즉심 판결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던 하루 반은 정말이지 너무도 아늑한 시간이었다.
편안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며 걷어차이지 않아 좋았다.
남자들이 지키고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낮은 화장실 벽으로 화장실 갈 때마다 수치심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지 않아 좋았다. 당시 함께 구류를 받았던 후배와 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을 지키던 순경쯤 되는 사람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자고 했을 정도였다. 단지 순순히 가둬준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진압 모습을 볼 때, 경찰서 내에서의 모습도 전혀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강산도 변하는 10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 미결수도 죄인이 아닌 마당에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집회참가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사회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생활글 일반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김진규

1979년 겨울, 형의 석방

등하교 길은 항상 힘들었다. 2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집은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학교는 시내여서 걸어다니기가 녹록치 않았다. 특히 하교 길은 마치 등산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때는 1979년이었고, 어느새 찬 바람이 이마로 불어와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했다. 2주만 더 지나면 방학인 때였다. 그러나 그 시간 이전에는 왠지 설레는 마음이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내내 어떤 우울한 기운에 휘감겨 있었다는 기억만 날 뿐이었다. 흑백TV와 라디오를 통해 뭔가 큰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겨우 내 나이 10살이었다.

형을 다시 만났던 그날도 예전처럼 난 산복도로 위에 자리잡은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주변에는 지난 전쟁 통에 어디 쓰다 남은 건축자재로 지어진 듯한 집들이 오밀조밀 놓여져 있었고, 실타래처럼 얽힌 골목길들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는 마치 하늘 너머까지 뻗은 것처럼 보였다. 가끔 뚜벅뚜벅 걷다가 어느 구멍가게에서 우뚝 멈춰 섰다가 동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쓸쓸히 발길을 돌린 참이었다. 포근한 햇살을 사선으로 내리쬐고 있던 태양은 이미 정오를 넘어서 있었고, 바람은 들쑥날쑥하다 마침 공중에 멈춰 있었다. 감은 눈앞에 갑자기 노란병아리가 떠올랐고, 체온이 약간 상승하고 있었다. 실은 서둘러 가봐야 좋은 일이란 없을 거라는 짐작에 한참 둘러 가던 참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형이 갑자기 사라졌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

렇게 재잘대던 누나 셋 모두 조용했다. 그래서 난 그 침울한 분위기에 감염되어 덩달아 힘이 빠진 상태였다.
이윽고 산을 정복한 기분으로 집에 도달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뻗쳐왔다. 마루와 큰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했다. 왜 아무도 없는 것일까.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걱정되었다. 좁은 마당을 돌아 정지(부엌)쪽에 다가갔을 때에야 비로소 수군거리는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또 아궁이가 3개인 부엌에 접한 내 방 밑에는 평소에 못 보던 낯선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음을 발견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난 재빨리 잠재우고 빼꼼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냅다 고개를 들이 미었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눈들의 방향이 급작스럽게 내 쪽으로 쏠렸다.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지만 그 눈들의 주인들은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그 중에서 지난 몇 달간 보지 못했던 형의 모습이 보였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다정한 눈들이 반짝였고, 주변에는 온통 웃음기가 샘솟고 있었다.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보고 “형님 무사히 돌아왔어요? 하고 물어봐라”며 말을 건넸다. 겨우 국민학교(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살푸시 미소만 지어주었다.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날이 12월 9일이니 아마도 그날은 12월 9일이나 10일쯤이었을 것이다. 형은 막 부산 주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였고, 형의 출소소식에 몇 달간 같이 애를 태워주었던 가까운 친척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난 그날 아침에 형이 출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것일까? 여러 번 필름을 되감아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들었음에도 멍청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형과 나는 같은 개띠였고 띠 동갑이었다. 그래서 형은 항상 나의 삶보다 한 박자 빨리 앞서갔고, 앞서갔고, 늘 그림자 같이 어렴풋한 존재였다. 이날 이전까지 형의 모습이 기억나는 경우는 네 번 정도였다. 최초의 기억은 내가 5살인가 6살 즈음으로 보수동 셋방 집에 살았을 때였다. 갑자기 사진사가 들이닥쳐 가족사진을 찍는다고 누군가 말했다. 후일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캐나다 민간인이 지원하는 무슨 구호기금과 물건을 받고 있었는데 지원대상인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그때 형은 어둑한 구석진 곳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나중에 앨범을 펼쳐 보다 당시 무척이나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고등학생 교복차림의 형을 발견했다. 두 번째는 저녁 도시락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형이 다니던 경남고등학교로 찾아 갔을 때였다. 하지만 이때 형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고 실루엣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까칠한 머리의 형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불도 켜 있지 않는 달빛 비치는 교실에서 그들은 담요를 덮어쓴 채 공부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시에 몇 명의 친척들과 함께 연못가에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였다. 형은 우두커니 웃지도 않은 채 마구 찍히고 있었다. 마지막 기억은 큰방에 내가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갑자기 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대로 멈칫 서더니 주절거리듯이 대학 합격을 알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형을 껴안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 형은 재수를 하여 서울대학교 문리대에 합격했던 것이었다. 그 때가 1977년이었다. 이와 같이 그 시기를 멀쩡한 정신으로 살았던 형과는 달리 나는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기에 오랜 시간동안 형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희미한 흔적만이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풀풀 일어날 따름이었다.

형이 두 달 넘게 집을 떠나 살았던 곳은 부산의 주례교도소였다. 죄목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다. 그 시절은 겨울공화국으로 불리던 유신 독재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시대였다. 구체적으로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고 1979년 12월 9일자로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시기가 이에 해당됐다. 혹자가 대학교를 다녔다면, 73에서 79학번까지가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줄여서 긴조세대)에 해당되었다. 형도 그 세대의 일원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아무나 긴조세대라고 자칭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긴조세대가 되려면 단순히 그때 대학을 다녔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한 발 짝 더 나아가 민주화를 위한 어떤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었을 경우로 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이나마 민주화된 지금은 도리어 지난 유신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마치 출세를

위한 경력처럼 나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를 그냥 무사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형이 왜 그 기간에 주례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 그 중간 사정 같은 것은 이후 조갑제가 쓴 『유고(有故)』라는 책을 읽고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책에 따르면 형과 두 친구들이 시도한 유신(維新) 반대 유인물 살포 사건은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있었고, 이것이 유신정권 붕괴의 불씨중 하나로 쓰여져 있었다.
실은 이 책을 읽고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형이 감히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형은 무척이나 여린 사람이며 그렇게 강한 체질의 남자는 아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 형이 대학 1학년 때 학내시위에 연루되어 제적되고, 다시 부산의 공업전문대학(현 경성대학교) 토목과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시위를 주동하여 결국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못했다. 앨범 속 검은 뿔테 안경을 눌러 쓴 더벅머리의 형은 도대체 뭘 믿고 감히 박정희에게 저항했을까? 80년대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기숙했던 그놈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 시절 형의 심장 한 컨에서 일찌감치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정도로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한 말에 의하면 출소한 형은 대학에 복학하지 않겠다며 우겼다고 했다.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단지 건물 안에서 구경했을 뿐인데 사진에 찍혀 자신을 제적시킨 대학에는 다시는 발을 붙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고집 센 형을 며칠동안 밤낮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당시 말단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너 때문에 사직서까지 냈었는데 그것을 몰라준다며 노발대발했고, 이후 큰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오래 남았다. 사실 아버지는 형의 학내시위와 제적 문제로 서울과 부산을 수차례 오간 상태였으며, 유신 말기에 시위 주동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사의 압력으로 사표까지 몇 차례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 형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작은 방에서 형과 아버지 사이에 오고가는 험한 고성에 누나들과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물론 난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몰

랐다. 형은 한때 어머니에게 당시 화가 너무 나서 아버지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2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일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참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 집은 당시에 연립주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2층이라도 사실상 3층 높이 이상이었고, 만일 큰방 창문으로 아랫집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아무튼 그만큼 형과 아버지와의 갈등은 마치 원수끼리의 싸움처럼 격렬했다. 이후에도 당분간 이런 집안 다툼은 80년대 내내 반복되어서, 난 이웃집에서 웃음소리라도 나면 왜 우리 집에는 저 집 같은 웃음소리가 없을까라는 자조하며 마냥 부러워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형은 한동안 극심한 갈등과 번민에 빠져 있다가 결국 서울대에 복학했다. 그러나 1980년 봄에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왜 갑자기 형이 군에 입대를 했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아직도 모른다. 그것이 혹자가 말하는 강제 입대였는지 아니면 나이가 차서 자연히 그렇게 징병되었는지 그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다. 이상하게도 나도 이것에 관해서 난 한 번도 형에게 직접 물은 적이 없다. 다만 군생활 중 씨름하는 모습의 사진을 나중에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아무튼 우연찮게도 그해 5월에는 공수부대에 의한 끔찍한 학살과 맞물려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이 일어났다. 형도 아마 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1988년 광주항쟁 청문회가 열리고 광주민중항쟁 시기를 찍은 독일 방송국의 자료화면이 국내에서 방송될 때 난 형과 함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무척이나 비통한 기분으로 시청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이 한참일 때 광주에서 간첩들이 잡혔다는 보도를 듣고 난 역시 지금 광주의 무질서한 상황은 간첩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태가 진압되었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가끔 난 가족 앨범을 자주 들추어 본다. 그러면 봄풀이 무성한 곳에서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형을 자주 만나게 된다. 사진 속의 형은 언제나 똥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풀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빛바랜 사진을 오래 들여다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60년대의 쓸쓸한 분위기가 물씬 피어오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한 책갈피에 꽂혀져 있던 형의 친구가 보낸 우편엽서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옆서는 아마도 1978년도 봄에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형이 제적된 다음해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공부를 하다 갑자기 창밖으로 교정에 진달래를 바라보았는데 문득 형이 생각나 엽서를 띄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떠나버린 친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 빛바랜 엽서에 듬뿍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져 어린 내 가슴속에서도 감동이 진하게 느껴졌다.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형의 마음, 그 순수한 양심은 실은 군 제대 후에도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시대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또 연행되었고, 교사가 된 다음에는 이 땅의 교육현실을 바로잡겠다고 전교조에 주도적으로 가입했다 또 수감되었고, 결국 해직되었다. 그래서 형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지하철 공사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였다. 형수와의 갈등도 불거졌고, 아버지와 주변 친척들의 따가운 눈총을 온몸으로 받았다. 이 뒷이야기가 어쩌면 본론에 가까울 수 있으나 아무래도 좀더 뒤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198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련한 난 상경하여 관악구 봉천동에 있던 형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재수를 했다. 그해 봄 어느 날 형과 같이 관악산으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형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이 형이 언제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 같냐는 것이었다. 난 그 돌발적인 질문에 그저 형이 재수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때가 아니겠냐고 건성으로 답했다. 그때 형은 진지한 눈빛으로 서울대학에서 제적된 후 다시 부산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독서실에서 공부했을 때였다고 회고조로 말했다. 제적된 후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마음을 추스르고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은 후기 입시를 위하여 신들린 것처럼 공부했다는 거였다. 그 때문에 체력장 점수를 제외하고도 그 대학에 차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후 난 형이 재수할 때 학원비가 없어 거의 도강(盜講)하다시피 했고, 서울에서도 방 한 칸이 없어 독서실을 전전하며 담요 한 장으로 새우잠을 잔 것을 어머니와 큰누나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 형은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버지를 볼 면목이 서지 않아 아침에 그저 묵묵히 도시락 하나만을 들고 독서실로 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형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아마도 1979년 9월이었을 것이다. 막 등교하려는 아이에게 엄마는 약간 울먹이는 말투로 슬픈 말을 했다. 형이 잡혀갔으니 이젠 믿을 건 너밖에 없다는 거였다. 그때까지 아이는 단순한 개구쟁이였고 철부지였다. 하지만 엄마가 무척이나 슬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는 어쩌면 우리 집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검정색 철문을 나서면서도 엄마의 말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산복도로를 지나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풀죽어 내려오면서도 아이는 오직 엄마의 말만이 떠돌았다. “형이 잡혀갔다.” “형이 잡혀갔다.” 이 말은 계속 내 귓바퀴에서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든 것은 학교와 집의 거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달팽이관에서 말들이 몰려 빠른 공회전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목구멍과 눈두덩이 울컥했다. 눈물이 솟구쳤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야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힘이 났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향해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였다.

2005/10/28(금) 한오

생활글 일반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최복임

비석 속에 갇힌 역사

올 해 우리마을에 비석이 하나 생겼다. 그건 작은 시골 마을에 큰 경사였다. 마을회관을 다시 지으면서 앞 공터에 마을의 역사를 새긴 비석을 세우게 된 것이다. 마을 대표들이 모여 비석에 새길 내용을 준비했다. 마을이 생기게 된 때와 어떤 성씨들이 살고 있는지 그건 한마디로 우리들이 살아온 발자취, 바로 작은 역사를 새기는 것이었다. 역사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반성과 지혜를 주고, 그것은 다시 내 아이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지혜와 사고를 낳는다. 새로운 이야기들은 그렇게 탄생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낸 하루 들이 모여서 내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다수의 임씨 성을 가진 사람과 다수의 변씨 그리고 소수의 최씨들이 살고 있다. 제일 많은 성씨는 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소수의 성씨인 최씨이고 어려서부터 임씨 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많은 따돌림을 받으며 자랐다. 내 또래에서 나는 유일한 최씨 성을 가진 아이였고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다. 내 나이가 스물여섯 이지만 명절에도 난 동네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뭔가 꺼림직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내 언니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큰 언니는 어려서 '나도 임씨 성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거의 왕래가 없고 아버지만 혼자 모임

에 나갔다 오시곤 한다.
임씨 중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다. 그 분은 어떤 싸움이 나도 침묵을 지킨다. 그 침묵이 내 편이라는 확신은 아니지만 말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처럼 아버지에겐 위안이라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석을 제작하면서 불거졌다.

원래 이 마을은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와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저 와서 터를 잡았다고 기록하자 한 것이다. 당연히 아버지는 반기를 드셨고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하자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껏 중립을 지켜 오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이렇게 작은 마을에 세우는 비석이 무슨 역사냐” 아버지는 혼자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뜻을 관철시키기 못했다. 비석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새겨졌고 마을의 축제도 성대히 치러졌다.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작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거짓은 돌 속에 갇혀 버렸다. 그 누가 이제 최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터를 잡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항상 다수라는 이유로 언제나 그들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일들을 대부분 넘겼지만, 이번만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만약 이 비석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를 세우는 과정이 기술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왕조의 이야기를 뒤바꿔 버린다면 말이다. 나는 우리마을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마을은 국가의 축소판이고 실지로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정말 억울하고 분개할 일이다. 마땅히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서는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면 정말 우스운 일 아닐까? 우리마을의 임씨 성을 가진 분들 중에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이다.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간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아주 작은 마을의 아주 작은 여사를 이미 왜곡시켜 버린 그 분들이 과연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분들께는 할말이 없겠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이 아닌가?
아주 작은 완두콩에서 폭발에 폭발을 거듭해 지금의 모습을 가졌다는 지구처럼 말이다.
지금도 그 비석 옆을 지날 때면 참 씁쓸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비석의 첫 부분을 고칠 수 있기를 꿈꾼다. 아주 작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다.

생활글 일반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김수연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통에 눈을 떴다. 창 밖으로는 지저귀는 참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이다. 그러나 그의 아침은 꽤나 우울한 것 같다. 보드라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에 찰그랑대는 쇳소리, 구수한 된장국과 상추가 가득한 밥상의 향기 대신 땀내음이 물씬 풍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의 보금자리다. 채 한 평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쭈그렸던 몸을 편다. 그는 보통의 사람들이 중년의 늘그막에 가지고 있을 따뜻한 가정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한 패배자처럼 보인다. 나는 그의 구차해 보이는 삶에서 패배의 기색을 찾는다. 힘겹게 고개를 치켜 올린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세월을 버텨낸 늘그막의 주름이 그득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주름의 사이사이에는 지고한 순수의 빛 같은 것이 감돈다. 게다가 그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의 좌절스런 표정 따위를 짓고 있지 않다. 그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설원위에 고매하게 서있는 꼿꼿한 매화 같다.

그의 이름은 김선명. 그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44년여를 복역한 세계 최장의 비전향 장기수다.

그는 95년 8.15특사로 풀려난 직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키고자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벌거숭이로 내던져진 인간의 마지막 투쟁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홍기선 감독의 영화 ‘선택’에서 (물론 대역이지만) 침착하고 신뢰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바깥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이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내게는 이 곳이 자유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단 한가지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많은 생활의 편리들을 버렸다. 그렇다고 그가 유독 열렬한 혁명 분자였다거나 철옹성같은 사상의 벽을 쌓아놓은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잘 살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북을 택했다. 그리고 잡혔다. 어쨌거나 그는 전향을 요구하는 많은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40년 이상을 0.7평의 감옥소에서 매화처럼 지내왔다. 세상을 접하지 못한 사람답지 않게 그의 얼굴에는 삶을 향한 지혜와 여유가 엿보인다. 그는 그 자유의 공간에서 점점 더 꼿꼿한 사람이 되었나보다. 그러고 보니 그가 내다보는 창살 밖의 세상이 오히려 감옥소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자유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심장 속에 꼭꼭 묻어놓고 살아야하는 커다란 감옥소.

나는 그 영화를 대학 새내기 시절에 보았다. 막 고등학교의 생활을 마치고 새로 접한 일 년여의 대학생활은 나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 마음껏 수업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처럼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가끔 수업을 땡땡이치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해도 나에게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교수님들은 민주적으로 보였으며, 시험은 출제 선생님의 취향에 맞춘 5지 선다형이 아닌 내 주관을 위한 서술형이었다. 고등학교 때처럼 다른 모든 아이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거나 각을 세운 블라우스를 입지 않아도 되었고, 등굣길에 머리칼을 들춰보며 자로 길이를 재는 선생님도 없었으며, 선배들을 보면 저 멀리서부터 뛰어가서 허리 숙여 인사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에게 대학생활은 자유라는 울타리에 둘러쳐진 천국과도 같았다. 나는 모처럼 만난 행동의 자유를 얼마 동안 마음껏 누렸더랬다.

그러던 중 한 선배를 알게 됐다. 그는 내가 입때껏 만나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량한 미소를 지을 줄 알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를 좋아했으며, 가끔 후배들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입담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자신의 주장을

굽힘없이 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좋은 사람이었단 얘기다.

그런 그는 나와 내 동기들과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 씩이나 과방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 우리는 밤새워 삶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곤 했다. 또 가끔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열렬히 토론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두 학교 앞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쯤이면 그 선배는 항상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학교 안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즉, 한총련의 정치 수배자였다. 그는 학교 안에서 살고 있었다. 나의 친구들이 낮 동안에 술을 마시고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캠퍼스가 그에게는 집이었다. 그는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갖가지 학교 행사의 기념 티셔츠로 옷가지를 마련하곤 했다. 우리는 학교를 감옥이라고 불렀다. 곧 우리들은 2차로 학교 앞 술집 대신 그의 생활공간인 총학생회실을 택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나 익명의 감시자들에게 둘러싸인 감시의 대상이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여러 명의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가는 악몽을 자주 꾼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를 괴롭힌 건 악몽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 친구들과 그 자신이었다. 유독 그를 따랐던 나는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그는 나를 학교 정문까지 밖에 바래다주지 못한 것을 늘 미안해했다. 그리고 가끔 종로니 대학로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그는 신변의 안전상 소규모로 열리는 집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호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나와 친구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열심히 모든 일을 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그의 두 눈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득했다. 그는 언제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행동했고 자신의 행위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불쌍하다느니 어리석다느니 하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그의 성실함과 진실됨으로 대답하고는 했다.

내가 입학한지 한 학기가 지나가던 어느 날, 그는 정부의 한총련 수배자 수배 해제의 일환으로 일명 '자유의 몸'이 되었다. 경찰서에 출두하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는 이제 법적으로 학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축하파티를 학교 앞 술집에서 했더랬다. 그날 우리는 아마도 울거나 했던 것 같다. 학교 안에는 아직 수배 해제를 받지 못한 여러 명의 선배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수배 해제 며칠 후에 그가 영화를 보러 가자며 나와 내 친구들을 이끌었다. 때마침 개봉한 영화 <선택>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우리 옆으로 해질녘의 종로 길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연인들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스쳤다. 아마도 우리는 그날 밤을 새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다. 우리가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김선명씨가 바라본 창살 밖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미처 몰랐었다. 나의 선배가 바라본 학교 밖의 세상이 우리만의 세상이었다는 걸 나는 몰랐었다. 내가 믿고 누리고 있었던 자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즈음엔 가끔 길을 지나는 아저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금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야. 나 젊었을 때만 해도 사회주의의'사' 자만 꺼내도 잡혀가곤 했었다고. 지금처럼 맑스가 어떻느니 하는 책들이 감히 어떻게 나와. 정말 좋아졌지 뭐야. 우리나라도 정말 발전했어. 요즘 애들은 행복한 줄 모른다니까."

김선명씨가 입소한 1950년대와 출소한 1990년 대, 그리고 나의 선배가 수배 해제된 2000년대에도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족되고 사회 제반의 인권 문제들이 고발되고는 있지만, 사회의 창살은 점점 더 촘촘해지

고 있는 것 같다. 그 쇠창살은 예전처럼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띄어 공포를 주는 방식을 버리고 노랗고 푸른빛들로 채색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나 마음껏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마냥 보이지만 그 창살의 모양새에 맞춘 사람이 아닌 이상은 뚫고 나갈 수 없게 더 견고해져버린 것이다. 그 창살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도 그 소외됨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사회의 창살이 더 좁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창살 밖으로 나간 선배는 일년 후에 졸업을 했다. 그는 사람들의 말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자유롭게'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 할아버지들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자유롭게'.

김선명씨가 출소 후 했던 말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큰 사상은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양심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시흥포리초등학교 5학년 황정민

평화는……

평화는요
미움이 있는 곳에 오지 않는대요.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일들 못마땅해
씩씩거리며 눈 흘기지 않는
서로가 감싸며 사랑하는 곳에
사알 짝 다가온대요.

평화는요
다툼이 있는 곳에 오지 않는 대요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말은 무시하며
꽥꽥거리며 큰소리치지 않는
서로가 한 발짝 양보하는 곳에
사알 짝 다가온대요.

평화는요
욕심이 있는 곳에 오지 않는대요.
내가 다 갖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밀쳐내며
싹싹 긁어 싸안지 않는
서로가 조금씩 나누는 곳에
사알 짝 다가온 대요

지금은 둘로 나뉜 우리 남과 북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면
언젠가 언젠가는
평화가 사알 짝 다가와
한 마음으로 통일 이루라 속삭이겠지요 공오

시 초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중흥초등학교 5학년 이나연

통일의 푸른 바람

남과 북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다정스레 속삭이는
한 줄기 푸르른 바람이 되고 싶어.

만남의 바람이 되어서,
인민학교 친구들에게 속삭여주고 싶어.
남녘 친구들의 간절한 바람도
다름 아닌 통일이라구.

푸른 바람이 되어서,
철조망은 치우고
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속삭여 주고 싶어.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과 벗을 삼아
한 숨으로 늘어버린 주름살을 언제나 펴줄까?
“남녘땅 우리 형제들은 잘 있을까?”
“북녘땅 우리 부모님께서는 살아 계실까?”
금수강산 골짜구니 마다에 메아리지는
이산가족의 가슴앓이를
살며시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싶어.

어서 빨리
백두산 천지의 맑고 푸르른 바람아
한라산 백록담의 짭조름한 갯바람을
어서 만나서 휘감고 돌아
우리 민족의 한숨소릴 풀어달라고
큰소리로 메아리 쳐주고 싶어.

한이 얼마나 많아 한반도인가?
못다한 한이 강물되어 한강인가?
압록강과 두만강 줄기를 타고
서귀포 감귤나무를 따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맴돌며
슬픈 사연이 베어 있는 통일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싶어.

그냥 돌아다니는 바람 말고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푸르른 바람이 되고 싶어.

맑고 푸른 바람아!
북녘땅 인민학교 친구좀 좀 만나게
날 실어다주지 않으련?
우리의 열망인
통일의 그 날을 어서 앞당기게 말이야.

시 초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광주효동초등학교 5학년 이창신

그들은 알까요?

통일관 앞 잔디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통일글짓기를 하는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 적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염원을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열차 폭발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용천역 주민들을 위해
용돈 모아 성금 내는 우리들

내 부모형제가 다친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통일관 주변의 야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시는 노인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통일조국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라는 걸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무려면 어때요?
이젠 그런거 따지지 않고
조건없는 사랑을 주기로 했어요

우린 단지
평화통일을 원할 뿐이니까요

시 초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도량초등학교 6학년 윤수영

내일의 통일

어제도 오늘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도
헤어진 가족의 보고픈 아픈
상처 때문에 깊게 패힌
밭고랑 주름으로 변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사여부도 모르는
북쪽의 가족을 향해
검게 타버린 마음을
끌어안고 소리없이 울고있네
마음으로는 수만번 넘었을
휴전선위 고향 산천
수없이 생각했을 가족얼굴
목숨보다 통일이 더 반가운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소리없는 울음이
북쪽 어딘가의 고향가족
향해 날아가고 있네

시 중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상원중학교 3학년 한성덕

밤처럼 검은 이의 나처럼 검은 눈에서

밤처럼 검은
그의 눈에서
하얀 빛을 읽었다.
상록수 역-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전철역에서
나처럼 홀로 선
그의 눈에서
나는 어째서 낯익음을
느꼈을까
하와이 그 머나먼
땅에서 파인애플을 일궜을
그들의 피가 나에게도 흐름일까
사할린 그 차디찬
갈대밭 습지에 주저앉아 울음 울던
그들의 눈물이 나에게도 있음일까
깡마른 아이들
큰 눈망울 등에 지고
착하게 웃어줄
아내 눈에 담고
바다를 건넜을-
난 겪지 못한 그들의 꿈을
꿈속에서 겪어보았던 것일까

뼈를 삭이는 노동,
땀방울, 땀방울 그 한 방울에
맺혀 흐르리라 믿은 꿈들은
얄팍한 봉투로 가슴에 내쳐지고
잘리운 손목 들고
절규하는 동료의 검은 눈물을
외면하고 다시 묵묵히
손에 스패너를 잡을
그의 쓴 웃음을 나도 아는 것일까

4호선 전철
따라 걸어간
상록수역,
아는 이 하나 없던
그 쓸쓸한 공간에서
설핏 스쳐본
그 검은 이의
나처럼 검은 눈에서
나 조용히 슬픔을 읽었다

시 중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동백중학교 2학년 곽예슬

그깟 철쪼가리

어디 있느냐.
같은 땅 위에서 밥 먹던 그 형제들
다 어디 갔느냐.

언제까지고 같이 살아가자
약속하였던 것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깟 철쪼가리에 무너져
서로를 만나지도 못하는
이 원통함을 어찌 말하겠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멀리서나마 대답해 오련.

그깟 철쪼가리 따위
이 땅을 갈라놓을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

시 중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호계중학교 1학년 고혜정

통일의 꿈

내 책상에는
커다란 지구본이
한번씩 심술궂게
팽그르르 돌아간다.

뱅글뱅글
돌아가다
눈에 거슬리는 것

SOUTH KOREA
NORTH KOREA
반으로 짤뚝 잘린
빨간 선으로 그어진
호랑이 허리

손으로 가릴 수는 없지만
이제
금강산도 올라가고
개성공단에 버스로 다녀오고

우리나라 통일되면
기쁨의 울음소리로
백두대간 호랑이
잠에서 깰 텐데,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얼싸안고
서로를 꼬집어 볼 텐데,

그것이 나의 꿈이자!
너의 꿈 일 텐데.

시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대진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유미

피범벅의 병정놀이

어린 소년들은
차가운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막과도 같은 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파란 모자를 쓴 꼬마 병정이 되어
화약을 목에 걸고 총을 겨눈다.
저 멀리에 있던 빨간 모자 병정이
흔들리다 쓰러진다.

죽음이 두렵다. 가족이 그립다.
나는 그저 열 여섯 살의 소년일 뿐이다.
불구덩이의 삶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하얀 천사의 빛
천사의 깃털 하나가 내 얼굴에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 천사를 '마약'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수고로운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유일한 희망이다.
빛을 따라가면 전쟁과 죽음의 공포는 마취되고
나는 한없이 걸어들어만 간다.

사막에 모래 바람이 인다.
모래 위로 푸른 모자가 털썩 떨어져 구른다.
16년의 고단한 삶은
여기 모래 바람과 함께 날아간다.

시 고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영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지선

로봇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른다.
회로선을 따라 온몸을 돌고 돌아
미세한 세포에게 명령을 전달한다.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손과 발은 의식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멈춤을 반복한다.
어느새 생각조차 확신이 사라지며
의심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따뜻하고 생명력이
가득했던 붉은 피는
말라 비틀어진지 오래
복잡한 전선과 회로들이
가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몸은
이미 나와는 다른 인격에 따라
저 멀리서 보내는 누군가의
리모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다.

시 고등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명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아라

여느 때와 같이

아빠가 공장 입 속으로 들어간다
엄마가 공장 입 속으로 들어간다
형과 언니가 공장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공장은 그들을 맛있게도 씹어버린다
씹어대는 공장 입 속이 날카롭다

공장이 비명같은 기침을 한다
결국 토해버린다

그들은 홍수 같이 밀려나오고
역겨움에 늘어진 고개는
땅에 처박혔다

그들은 서러운 방바닥에 눕기 위해
벙어리처럼 걸었다

시 고등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화순실업고등학교 3학년 구효경

비로봉에 올라서다

비로봉, 너 추녀끝처럼 곧게 솟은 산봉우리야
구름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다오.
이게 어인일인가.
우리사는 이 땅이 너무 좁구나.
좁고 좁아 언제라도 마주칠 것 같은데
끊어진 허리는 애간장마저 끊어놓는구나.
사리원, 그 곳의 사과향기가
솔바람 싣고온 향로봉의 향기가
코 끝 빨개지는 떨림으로 두 눈 빗물 솟아낼 때
오랜 세월 타들어간 대지의 가슴에
피 맺힌 한덩어리 씻어내려 주었으면.
대답없는 대지와 침묵하는 저하늘에
돌탑처럼 쌓여가는 그리운 이름들.
시대가 바뀌었다오.
세월이 흘렀다오.
이제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실오라기 같은 희망따라
새하얗게 서리내린 말숙할미의 머리카락.
말숙할미의 마음은
비로봉에 가있습니다.
여전히 누워있을 묘향산의 향나무.
그 솔내음. 향내음 잊지 못해
두고온 북녘소식 신문기사만
돋보기로 들여다 보시는 그 뒷모습이
노을 기다리는 산처럼 아득합니다.

시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김범천

통일절에

딱 부러진 평양 아씨야
보석 같은 아들놈 너에게 주마
통일절 그날을 기념 삼아서
가뭄도 넉넉한 배들 평야
백미 한 가마쯤 떡 해대어
동네방네 얼씨구 잔치 한 번 벌여 보자
딱 부러진 평양 아씨야
너 보기 간절히도 원하였네
백두산 두견주 때 맞춰 담아 내어
콸콸콸 넘치도록 부어라
흐르는 눈물도 섞어 마시리
곱기도 고와라 너의 볼처럼
허리띠 풀고서 마셔나 보리
무에 급하리 평양 양반 손 잡고서
너희들 혼례청 들기도 전에
못난 세월 아니 답답하였나
그려 답답하였네 수작도 하고
자진모리 어깨춤도 들썩들썩
소리도 한 자락 북 장단도 덩덕 쿵덕
그날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제발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딱 부러진 평양 아씨야

시 일반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이근우

해피 버스데이

두 살이 된 아이 생일 오천원이 전부인 엄마는
빵집 앞을 서성이다가 크림빵 세 개를 샀다
그리고 얻은 생일초 하나 남은 돈 삼천원
오백원짜리 우유 두 개 돼지저금통을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몇 개월째 일거리가 없어 방구석에
가구처럼 앉아있는 남편은 미안한 마음 뿐
쥐구멍도 찾을 수 없어 이불을 깊게 뒤집어쓴다
상이 차려지고 작은 상 위에 크림빵이 세 개
크림빵에 생일초를 꽂고 불을 붙인다
아이를 데려다가 불을 끈다 생일 축하해
이건 선물 아빠랑 엄마가 주는 거야
돼지저금통에 남은 잔돈을 넣어
아이에게 주면 아이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리곤 남편 앞에 크림빵 하나 우유 하나를 점심으로 놓고
일터로 나가려하는데
엄마엄마 옹알대는 아이가 활짝 웃었다
엄마는 일터에 나가려는데 나가야하는데
눈물이 나도 꾹 참고 그래 사랑해
아이 손을 꼭 잡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한다

시 일반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영근

무덤에 핀 민들레

무덤에 민들레가 피었다.
노오란
꽃잎들이
서리 묻은 무덤의 주검을
덮어주고 있다.
광주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절규하던
그날의 영혼이
이곳에서 쓰러졌다.
터질듯
붉은 선혈이
무덤위를 적시운다.
서린 내린 무덤 위로
얼음발이 번지운다.
노오란
꽃잎들이
서리 묻은 무덤의 주검을
덮어주고 있다.

시 일반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이명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
뜨따 뜨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코흘리개 시절 바라 본 하늘새
신기하게만 쳐다보던 그것이 물고 갔다는 여자애
열다섯 시간 파란 하늘을 날아 도착한 파란 지붕 네가 울면 오 베이비 너를 보는
파란 눈, 그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온통 파란나라 그 낯선 곳에서

2.
까만 머리 까만 눈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누런 피부, 오 마더, 오 파더, 후 엠 아이?,
후. 엠. 아이...이런, 앨리스, 버터를 먹지 않고 왜 온몸에 발랐니, 오 빌어먹을 코리안
베이비, 난 철이 들면서 두개의 날개를 가졌지, 미래로 향하는 날개 하나, 과거로 향하는
날개 하나, 생각이 다른 두 날개가 한 곳을 향해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니, 난 한쪽의
날개로 절며 그렇게 하늘을 날았어, 남 몰래 와인을 마시며 노-노-노를 연발하며

-1979년 10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한 복지시설 앞
  쪽지와 함께 발견. 오른발에 까만 반점 있음-

3.
이봐, 앨리스, TV 속의 네 얼굴은 우리와 달라
이국적인 손짓, 유창한 외국어, 게다가 주눅이 드는 의학도라니,
혹시 네가 아파 그 길을 간 거니? 사실 우린 이런 류의 드라마에 익숙하지
두 모녀가 어떻게 극적으로 만날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직 그것뿐
물론 다음 주의 그 주인공은 네가 될 수도 있지, 만약 운이 좋다면

4.
2005년 서울. 나와 닮은 사람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들과 다른 색깔. 이곳도
내가 살기엔 힘든 곳. 이런 느낌 이미 오랫동안 익숙한 나의 본능. 나는 낯선 나라, 낯선
거리에서 이십 오년 전 이름 모를 여인을 찾고 있어, 다른 건 이제 필요없어 당신을 만나면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 당신도 나와 같이, 나와 똑같이 절뚝이는 날개를 가졌냐고, 그
날개를 당신도 가졌냐고, 그 대답이 듣고 싶어

5.
월드컵 4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기들 21세기에도 해마다 3천여 명은 해외로 간다네
뜨따 뜨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새야, 오늘은 파란 눈의 나라로
새 알 몇 개나 물어 가니

수상자 명단

* 특별상

대상	수상내용	이름	소속
전체	국무총리상	이슬	부천여고 2학년
	행자부장관상	성호연	시민

* 독서감상문

대상	수상내용	이름	소속
초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정채원	매탄초 6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조혜민	정읍서초 6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조광재	모산초 6학년
중등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은주	선정중 2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이지원	인천용현여중 2학년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최미란	광동고 3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김지희	광동고 3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배소영	부광여고 2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서휘원	부산국제고 2학년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박새봄	전남대 2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임영직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선주	-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송수진	-

* 생활글

대상	수상내용	이름	소속
초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안원빈	울산중앙초 1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한승지	범계초 5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안승현	중흥초 5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이기남	중흥초 5학년
중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윤고운	저동중 1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이은주	합포여중 3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영우	광주동신중 1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이수혁	소래중 3학년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이동수	상문고 2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조찬향	서영여고 2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소담	대원외고 1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전미라	남한고 3학년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김양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김진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최복임	-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김수연	-

* 시

대상	수상내용	이름	소속
초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황정민	포리초 5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이나연	중흥초 5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이창신	광주효동초 5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윤수영	도량초 6학년
중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곽예슬	동백중 2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고혜정	호계중 1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한성덕	상원중 3학년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박유미	대진여고 2학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박지선	영복여고 2학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조아라	명신여고 2학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구효경	화순실업고 3학년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김범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이근우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김영근	-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이명윤	-

제4회 문예공모전 개요

■ 행사목적

○ 평화·인권·민주라는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
○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자긍심으로 고취
○ 문예공모전 당선작들을 민주주의 교육 교재로써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계승·발전에 도모

■ 행사개요

○ **행사기간**
- 응모 : 2005년 9월 20일 ~ 10월 31일
- 예심 : 2005년 11월 5일 ~ 11월 11일
- 본심 : 2005년 11월 12일 ~ 11월 18일
- 발표 : 2005년 11월 21일
- 시상 : 2005년 12월 10일

○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후원** : 행정자치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민족문학작가회의

■ 행사내용

○ 주제

- 평화, 자유, 인권, 민주, 통일 등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실천사례와 경험

○ 응모부문

- 독서감상문, 생활글, 시

○ 응모형식

(1) 독서감상문, 생활글

- 초등부 : 200자 원고지 5매 이상
- 중등부 : 200자원고지 13매 이상
- 고등부 : 200자원고지 18매 이상
- 일반부 : 200자원고지 20매 이상

(2) 시 : 개인당 3편 이상

○ 소재

- 주제어 : 평화, 자유, 인권, 민주, 통일, 환경 등
- 생활글
  - ° 소개하기 : 주제어와 관련된 캠프, 축제, 토론회 등 참가수기
  - ° 주장하기 : 내가 생각하는 주제어의 설명, 다양한 실천방법 제안 등
  - ° 자랑하기 : 주제어를 위해 활동하는 자신,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제어를 잘 실천하는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 시 : 주제어 참고
- 독서감상문 : 아래 추천도서

※쉬운 주제 접근을 위해 소재를 소개합니다. 이 외의 소재도 가능합니다.

* **추천도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추천)

□ **환경**

○ 어린이
- 구름, 구드룬 파운제방, 일과 놀이
- 쿨쿨 할아버지 잠 깬 날, 위기철, 사계절
-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1.2, 최열, 청년사

○ 청소년
- 소 방귀에 세금을, 임태훈, 디딤돌
- 울지 않는 늑대, 팔리 모왓, 돌베개
- 자연을 꿈꾸는 뒷간, 이동범, 들녘
- 지구의 딸 지구시인 레이첼 카슨, 김재희, 이유책
-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죤 라이언, 그물코
- 지구생태이야기 생명시대, 김소희, 학고재

○ 일반
- 녹색세계사, 클라이브 폰팅, 그물코
- 시민 과학자로 살다, 타까기 긴자브로오, 녹색평론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녹색평론
- 인디안 추장 연설문, W.C. 밴더워스, 그물코
- 환경의 역습, 박정훈, 김영사

□ **통일**

○ 어린이
- 그리운 매화 향기, 장주식, 한겨레아이들
- 문수의 비밀, 배선자, 채우리
- 통일 나라 역사 여행, 이찬행, 아이세움

○ 청소년
-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백기완, 청년사
- 상처 입은 세기의 거장 윤이상, 최지숙, 교학사
- 손풍금, 김원일, 중앙일보· 문예중앙
-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강만길, 당대

○ 일반
- 광장, 최인훈, 문학과 지성사
- 민통선 평화기행, 이시우, 창비
- 소라단 가는 길, 윤흥길, 창작과 비평사

□ 평화

○ 어린이
- 나는 평화를 꿈꿔요, 유니세프 엮음, 비룡소
- 몽실 언니, 권정생, 창작과비평사
- 바람이 불 때에, 레이먼드 브릭스, 시공사
- 산적의 딸 로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시공주니어
- 살꽃 이야기,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오늘
- 시냇물 저쪽, 알즈비에타, 마루벌
- 어머니의 감자밭, 아니타 로벨, 비룡소
- 여섯 사람, 데이비드 메키, 비룡소
- 전쟁은 왜 일어날까, 질 페로, 다섯수레
- 평화는 힘이 세다, 로라 자페 외, 푸른숲
- 평화의 어린이들, 귀도 스타스, 서광사

○ 청소년
-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정다영, 창작과비평사
- 맨발의 겐, 나카자와 케이지, 아름드리미디어
-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청년사
- 무기의 그늘 1, 2, 황석영, 창작과 비평사
- 보거와 함께 떠난 7일간의 특별한 여행, 질베르 시누에, 예담
- 십자군 이야기, 김태권, 길찾기
- 제로니모, 포리스터 카터, 아름드리미디어
- 쥐, 아트 슈피겔만, 아름드리미디어
- 태양의 아이,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건 이제 끝, 브리지뜨 라베, 소금창고

○ 일반
- 권력과 테러, 노엄 촘스키, 양철북
-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 이후
-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한겨레신문사
- 전쟁중독, 죠엘 안드레아스, 창해
- 칼을 쳐서 보습을, 김두식, 뉴스앤죠이
- 팔레스타인, 조 사코, 글논 그림밭
- 항금이삭, 안재성, 삶이 보이는 창

□ 자유 · 민주 · 인권

○ 어린이
- 기찻길 옆동네 1,2, 김남중, 창작과비평사
- 깨어나 일어나, 국제평화의 어린이회, 사람생각

-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닷컴
- 뚝딱뚝딱 인권짓기. 인권운동사랑방 지음, 윤정주 그림, 야간비행
- 손바닥에 쓴 글씨, 김옥, 창작과 비평사
- 왜 나를 미워해, 요시모토 유키오, 보리
- 전태일 : 청년 노동자, 위기철, 사계절

○ 청소년
- 7인 7색 21세기를 바꾸는 교양, 홍세화 외, 한겨레신문사
-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창비
- 내 사랑 사북, 이옥수, 사계절
- 내일로 희망을 나르는 사람들, 박수정, 이학사
-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정순택 외, 이학사
- 만화 박정희 1-2, 백무현 글, 박순찬 그림, 시대의창
- 말해요 찬드라, 이란주, 삶이 보이는 창
- 모래밭 아이들, 하이타니겐지로, 양철북
- 사람답게 아름답게_인권 이야기, 차병직, 바다출판사
- 신문읽기의 혁명, 손석춘, 개마고원
- 십시일반, 박재동 외 9인, 창작과비평사
- 역사다시 읽기 하나_4·19혁명, 김정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다시 읽기 둘_6월민주항쟁, 유시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다시 읽기 셋_5·18민중항쟁, 김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다시 읽기 넷_부마민주항쟁, 김하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태일 평전, 조영래, 돌베개
- 자유의 길, 줄리어드 레스터, 낮은산
- 펄루 세상을 바꾸다, 애비 워티스, 주니어 김영사

○ 일반
- 꽃, 박건웅, 새만화책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바다출판사
- 내 생의 적들, 이인휘, 실천문학
- 대화, 리영희, 한길사
- 시대의 불꽃 5_김경숙, 박영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시대의 불꽃 8_윤상원, 윤동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시대의 불꽃 10_권종대, 안상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시대의 불꽃 11_박종철, 김윤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숲
- 좁쌀 한 알, 최성현, 도솔
- 한강, 조정래, 해냄

○ 응모방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시 상

- 특별상 :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 일반상 :

구 분	대상	훈격	편수	부상 (만원)
생활글	초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1	5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1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	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1	5
	중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1	10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1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	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1	10
	고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1	15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1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	1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1	15
	일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1	20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1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	2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1	20
독서 감상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 심 사

-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논리성, 창의성, 내용성 등을 고려
- 예심심사위원회 :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본심심사위원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상, (사)민족문학작가회의

www.kdemocracy.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은
평화 · 인권 ·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들을 되새기고,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에 맞서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온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자긍심으로 승화시켜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공동체 정신을
표현하는 마당입니다.